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임영상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연구책임

임영상 한국외대 지식콘텐츠학부 학부장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김우경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한상진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김승수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박성희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손유진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이영아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이은지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자 문

문 민 재한중국동포교사협회 회장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문화다양성 체험' 서울의 명소로 육성

중국동포 7만 명 거주 가리봉·대림동에 한·중 문화 공존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었을 때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되었다고 말한다. 2015년 12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90만 명에 이르렀으니 아직 4%(5천만 명 인구로 계산할 때 20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계 한국인인 중국동포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권의 4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구로구는 26,135명(18.4%), 영등포구는 32,057명(22.6%)의 중국동포가 장기 체류를 넘어 정주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가리봉·대림의 중국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식맵(지도)을 구축하여 지역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년도 2학기 디지털인문학 수강생들과 함께 문헌조사, 현지조사, 중국동포 구술채록, 지역동포단체 활동가 등의 자문을 얻어 탐방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키 콘텐츠인 지식맵을 구축하게 되었다. 가리봉동은 남구로역 4번 출구 동포세계신문사를 시작으로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거리 시장 통로와 그 지역을 둘러싼 주요 중국동포상점과 식당의 위치와 사진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림동은 대림역 8번 출구를 시작으로 대림 2동 중앙시장을 거쳐 대동초등학교, 대림 우성아파트사거리를 경유해 대림 3동 대림국제학원까지의 일대를 조사하고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중국동포인 조선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위키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낙후지역, 혐오지역, 에스닉 지역으로만 인식되는 중국동포타운이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삶의 이야기가 진하게 흐르는 문화의 명소로 가리봉-

대림을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서 글로벌 거대도시 서울이 지향해야 하는 문화도시의 목표성을 얻게 되었다.

[표 1] 서울특별시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 인구 현황 (2015년도 말)

(단위: 명)

시군구	성별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전국	계	380,091	187,934
	남	205,646	76,771
	여	174,445	111,163
서울시	계	142,168 (100%)	56,605 (100%)
	남	75,094	21,619
	여	67,074	34,986
관악구	계	12,647 (8.9%)	3,357 (5.9%)
	남	6,573	1,281
	여	6,074	2,076
구로구	계	26,135 (18.4%)	4,768 (8.4%)
	남	15,015	2,033
	여	11,120	2,735
금천구	계	16,207 (11.4%)	2,431 (4.3%)
	남	9,084	1,038
	여	7,123	1,393
영등포구	계	32,057 (22.6%)	5,323 (9.4%)
	남	17,614	2,465
	여	14,443	2,858

*출처 : 법무부출입국 *비중(%)은 서울특별시 대비

가리봉-대림은 생명력이 있는 문화 도서관이자, 특별함을 갖는 지역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 명동, 인사동 등과 더불어 서울의 명소로 사랑받는 서울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조선족의 이야기를 담은 지식맵은 중국과 한국이 공존하는 지역, 서울 속에 중국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해를 돕는다.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은 탐방자·여행객에 ‘좋은 길라잡이’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중국동포타운 안내지도는 가리봉-대림을 방문하는 탐방자들과 여행객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 지도가 기명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완, 수정 후 대량 제작되어 서울시민청,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공항, 여행사, 유명 중국어 학원, 서울시 내 명소 등 서울 곳곳에 비치되어 중국동포타운 방문을 유치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사업은 현존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의 지식망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이다. 지식맵은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한다.

○ 지식맵의 기능

- ① 관계망을 통한 지역 정보와 문화를 다수가 공유
- ② 지역 문화사업에 유용한 스토리텔링 자원화
- ③ 지역자원의 재구성

○ 지식맵의 용도

- ① 인적자원의 재배치를 통한 활용도 효율 극대화
- ② 지역 구성원의 상호교류 매체
- ③ 외부지역 간 소통 창구

○ 지식맵의 기대

- ① 중국동포의 문화, 역사, 이주 과정의 자료제공을 통한 내국인과의 사회적 경청을 통한 상호 화합과 협력
- ②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역사와 문화 보존 및 재발견을 통한 조선족 연구의 지평 확산
- ③ 서울 속의 중국(명동과는 다른), 특히 동북 조선족의 생활문화 체험 명소로 도시재생 구현
- ④ 다문화 서울의 또 다른 문화 다양성 개발

지식맵을 기반으로 가리봉-대림 탐방자들과 방문자들에게 지역 전문가와 중국동포들이 지역과 문화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이 후속 핵심 과업이다. 이를 통하여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소통과 이해가 형성되고 방문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식맵은 끊임없는 진화와 재생산이 가능하다. 지식맵은 지역이 하나의 브랜드로 협업하는 매개체가 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방법 및 내용	5
02 서남권 중국동포타운의 현황	8
1_조선족의 형성 과정과 국내이주	8
2_가리봉-대림의 환경	12
3_가리봉-대림의 선주민	16
03 재한조선족이야기	20
1_삶의 터전 가리봉과 대림	20
2_단체활동과 지역 네트워크	25
04 가리봉 - 대림의 지식맵 구축	32
1_지식맵의 구조와 방법	32
2_중국동포타운 위키	35
3_지식맵 형성	39

05 결론	44
1_지식맵 활용을 통한 활성화방안	44
2_정책제언	45
참고문헌	48
부록	50

표

[표 1] 영등포구 등록인구 현황	14
[표 2]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대분류	32
[표 3]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중분류	33
[표 4] 중국동포 구술자 명단	50

사진

[사진 1] 가리봉동 골목거리 전경	17
[사진 2] 가리봉동 또 다른 골목거리 전경	17
[사진 3] 대림동 한 학원의 모습	18
[사진 4] 대림동 또 다른 학원의 모습	18
[사진 5] 언니네 작은도서관(서울시 여성회)	18

그림

[그림 1] 구로구 외국인 현황	13
[그림 2]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관계도	34
[그림 3] 중국동포타운 위키 접속 화면	35
[그림 4]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대분류코드 화면	36
[그림 5] 중국동포타운 대분류코드 식당 클릭 화면	37
[그림 6] 중국동포타운 대분류코드 세부 정보 화면	37
[그림 7] 중국동포타운 대분류코드 세부 정보 화면	38
[그림 8]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위치	39
[그림 9]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시작화면	40
[그림 10]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사용화면	41
[그림 11]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탐방로 코스 기획(안)	42
[그림 12]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탐방로 코스 지도(안)	42
[그림 13] 가리봉동 음식문화지도 팸플릿	100
[그림 14] 대림동 음식문화지도 팸플릿	101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방법 및 내용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재한중국동포는 이제 7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이로써 이들은 140만 명 외국인 시대에 최대 집단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중국적인 색채가 가미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 한국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으나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또는 차이나타운)은 최대 규모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중국동포사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그 상징적 의미도 크다. 또한,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대림역을 중심으로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한족 등 중국인의 모임 장소로 대형 음식점, 웨딩홀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동포언론기관 및 다양한 사회문화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공간’을 넘어 문화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는 ‘장소’임을 시사한다.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은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음식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할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동북지방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사천 등 다양한 지역의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의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이 이국적인 요소와 동시에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듯이,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특히 구로공업단지 시절 쪽방촌이 남아 있는 가리봉동)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일어난 일부 중국동포에 의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또한, 중국동포 내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등 명암이 교차하는 곳이다.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이 ‘서울의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 서울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음식문화 체험을 넘어 조선족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Knowledge Map)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 재외한인연구팀은 [사]동북아평화연대가 수행 중인 2015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동포 미디어모니터링단 구축 및 콘텐츠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이 중국동포(중국인)의 집거지가 되면서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반세기 이상 단절되었던 동북(만주) 동포들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화체험학습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 일본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오사카와 관서지방 일대 일본의 초·중·고교 학생들의 주말 이문화(異文化) 체험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 고베시는 고베의 4대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차이나타운을 개발했다. 이와 같이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또한 중국 문화와 한국인의 생활문화가 융합된 중국동포를 만날 수 있는, 서울 속의 외국인 이태원 못지않은 서울의 또 다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곳이다.
- 가리봉 중국동포타운인 가리봉시장 일대는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구로공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쪽방촌이 남아 있는 곳이다. 초창기 한국을 찾은 중국동포들이 집거하면서 중국동포타운이 되었는데, 중국동포들의 한국 정착 초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PC방, 전화방, 여행사(행정사), 인력시장 등이 한어(漢語)로 쓰여 있는 연변거리의 축소판이다. 초기 중국동포사회 구축에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 중인 한

중사랑교회와 지구촌사랑나눔, 쪽방촌까지 둘러보면 대략 60~70분이 소요된다. 초기 중국동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업소와 기관, 장소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려고 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초기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한국을 찾은 중국동포들은 비좁은 쪽방도 꿰찼었다. 대부분 혼자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과 중국 양국을 왕래하는 세대, 즉 한·중 FTA 시대를 준비하는 20~40대 젊은 세대의 중국동포들은 자녀교육을 고려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대림2동을 새로운 집거지로 변모시켰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동포 언론과 단체가 들어섰으며, 대림 2동의 대동초등학교는 점차 중국학생(한족 포함)의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대표 다문화학교가 되었으며, 중국동포 노인을 위한 경로당도 생기게 되었다. 대림 2동은 한국인과 중국동포가 함께 만드는 [大林 소통길 함께 걷는 산책로]와 [대림중앙시장] 등 다문화 공생의 아름다운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젊은 세대의 중국동포들이 그들 부모 세대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대림동 중국동포타운은 중국동포의 대표 집거지를 넘어 동북을 비롯한 전 중국, 일본 등 해외로 나가 살고 있는 중국동포사회의 구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회갑연, 결혼식 등 각종 동포 가정의 대소사가 열리는 곳이 됨에 따라 토요일 오후부터 주말 내내 지하철 대림역 8번 출구와 12번 출구는 중국동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은 연변을 비롯하여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랴오닝성) 각지에서 온 중국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가리봉과는 또 다른 주말체험학습에 길잡이가 될 것이다.

2_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 방법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 관련 문헌조사(서울시사 편찬위원회 자료 등) (가리봉동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구로구 편 참조)
- 연변을 비롯한 동북의 각 지역에서 온 중국동포 원로들의 구술 증언 수집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의 역사와 변화 양상을 읽을 수 있는 『중국동포타운신문』 등 지역 동포언론 기사자료 분석
- 가리봉-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지역 문화 예술체육 활동 조사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및 구로구/영등포구 중국동포타운 집거지를 포함한 중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상업시설과 각종 단체 활동 및 주요 인물 조사와 동포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역사와 주요 활동 조사

(2) 주요 연구 내용

- 가리봉-대림 지역의 지리, 역사, 사회, 경제, 문화, 상업 및 인물 등의 관 계망을 만들어 지식맵 구축
- 가리봉동 가리봉(중국동포타운)시장, 대림 2동 중앙시장, 지하철 남구로 역과 대림역에서 도보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위치한 기관, 단체와 다양한 NGO조사, 대표 음식점소를 표시한 오프라인 문화지도 제작

02

서남권 중국 동포타운의 현황

- 1_조선족의 형성 과정과 국내이주
- 2_가리봉-대림의 환경
- 3_가리봉-대림의 선주민

02 | 서남권 중국동포타운의 현황

1_조선족의 형성 과정과 국내이주

중국의 조선족은 대대로 중국 땅에서 살아온 토착민족과 달리 한반도에서 근대 민족으로 형성된 뒤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통합과정에서 민족 정책에 따라 중국 56개 민족의 구성원에 편입되었다. 예부터 중국과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이웃 나라로서 두 나라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17세기 전반기, 명(明)조와 후금(后金) 간에 벌어진 분쟁과 후금, 청(淸)이 발발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시 강제로 중국 동북에 끌려온 일부 조선인이 점차 중국에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초기 조선족의 주류를 이루었다.¹⁾ 중국과 조선은 각기 변경지역 주민들의 월경을 엄격히 단속했었으나 채삼, 수렵 등을 목적으로 조선반도 북부 백성들의 범월잠입(犯越潛入)은 잦아들지 않았다. 19세기 후기에 조선반도에 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자 생계가 어려워진 조선 북부의 농민들은 청나라의 봉금령과 조선 정부의 월금령을 어기고 살길을 찾아 중국 동북 경내로 대량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조선인 집거지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1881년 청정부가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고 동북의 변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봉금령을 철회하고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실시하여 동북개발을 추진하게 되자 관내의 한족들과 동시에 한반도의 많은 주민이 동북에 이주해 왔다. 특히 연변 일대에는 조선인 전문 개간지역까지 설치되며 다른 지역보다 많은 조선 이주민이 모여들었다.

1) 조선족사의 상한점에 대해 중국학계에는 크게 두 개 분기가 있는데 하나는 명나라 말·청나라 초 설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중엽 설이다. 명나라 말·청나라 초의 이주민은 대부분 전쟁포로와 납치되어온 사람들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만주족귀족들의 농장에 분여받아 농군으로 일했거나 만주팔기병에 편입됐다. 이들의 후예들은 현재 요녕성 개주시와 본계, 하북성 청룡현 등 일대에서 살고 있다. 명조 말·청조 초 설에 따르면 현재 조선족의 역사는 300여 년이고, 19세기 중엽 설에 따르면 100여 년이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고 한반도가 일제에 점령되자, 땅을 잃고 자유를 잃고 파산한 수많은 농민과 망국노를 원치 않는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이 동북에 이주해 오게 되었다. 1931년에 이르러 동북의 조선인 인구는 이미 100여만 명에 달하였다.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동북에서의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날로 확장되는 침략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단 이민”, “개척이민” 정책을 시행하여 한반도로부터 많은 농민을 모집해 중국 동북에 이주시켰다. 그 결과, 1945년 광복 전까지 중국경내의 조선인 인구는 216만 명에 달하였다. 그 후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 간에 벌어진 3년 내전시기에 많은 조선인이 다시 한반도에 돌아감으로써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 전 중국 조선족 인구는 120여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한반도로부터 이주해온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경내의 다른 여러 민족과 함께 동북 변강을 개척하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각 민족 및 중국 정부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며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인정받았다(1949~1952년 사이).²⁾ 이로써 조선인에서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지위를 얻게 된 이들에게 이제 중국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조국이 되었다. 자신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을 함께 놓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 초기, 연변은 청나라의 봉금정책 때문에 인가가 매우 드물어 거의 비어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중국의 관내(산해관 이남) 지방과 가까운 요녕성 일대에는 산둥, 하북 등의 지구에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연변 일대에는 소수 토착민족(만주족) 이외의 다른 민족은 살고 있지 않았다. 살길을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온 초기 조선인 이주민들은 관내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한족 이주민과 함께 오랫동안 황무지였던 땅을 개척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동북에는 수전(水田)이 없고 밭농사만 있었는데, 조선인 이주민들에 의해 수전이 개간되고 버려진 진펄들이 옥답으로

2) 황유복, 2009, 「중국 조선족의 문화공동체」, 해외한민족연구소 편, 『한반도 제3의 기회』, 화산문화사, 267쪽.

변하였다. 때문에 조선인 이주민들은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고독감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제 손으로 일군 땅과 삶의 터전에 정이 붙기 시작했다. 또한, 일제의 침략세력이 중국에까지 뻗칠 때 이 땅을 고수하기 위해 중국의 다른 민족과 함께 나란히 싸웠으며 마침내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자치구(차후 자치주로 변화)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국민으로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도입과 농촌개혁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서비스 산업과 건설업계에서 대량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족의 인구 이동은 1980~1990년대 농촌인구의 인근 도시 진출, 1990년대 이후 조선족 집거 도시 및 농촌 인구의 연해도시 진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노무 송출 등 취업 위주의 국외 진출 등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³⁾

최근 10여 년간 조선족들의 대량 인구 유동으로 조선족 인구의 집거지인 길림성·흑룡강성·내몽골의 조선족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요녕성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주로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조선족 인구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길림성은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성(省)이다. 길림성의 조선족 인구는 1,183,567명으로서 전체 조선족 인구의 61.5%에 달하고 있고, 흑룡강성은 454,091명으로 조선족 총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요녕성은 중국에서 길림성, 흑룡강성의 뒤를 이어 조선족이 세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2010년의 제6차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요녕성에는 약 24만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조선족 인구(183만 명)의

3) 이승률, 2007,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 275쪽.

13.1%, 요녕성 인구(4,400만 명)의 약 0.54%를 차지한다. 요녕성의 조선족들은 전 성 14개 시, 100개 현(구)에 집거·산거(散居)해 살고 있으며 심양, 무순, 안산, 단둥, 본계, 영구, 반금, 요양, 대련 등 10개 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요녕성 성도(首府) 심양시에는 조선족 94,600명이 살고 있는데, 이는 심양시 총인구 810만 명의 약 1.16%를 차지한다. 심양시 조선족은 주로 화평구(和平区), 우홍구(于洪区), 동릉구(东陵区)와 소가툰구(苏家屯区) 등에 집거해 있다. 이 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65,259명으로, 심양시 조선족 인구의 68.98%에 달한다.⁴⁾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선족 집거지구 도농(都農) 인구가 연해도시로 대량 진출한 점이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업이 중국의 도시에 대거 진출하면서, 조선족 젊은이들은 도시로 진출해 한국 기업에 취직하였다. 특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들에게 한국 기업은 선망의 직장이었고, 일부 조선족기업이 연해도시로 진출하면서 동북3성을 비롯한 조선족 집거지의 젊은이들은 대량으로 연해도시로 이동했다. 한국 기업과 조선족 기업의 연해도시 진출은 현지 제3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조선족 농민들이 연해도시로 진출해 한국 기업과 음식 및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형성하였다.⁵⁾ 따라서 동북3성에 있던 중국동포가 한국 기업에 유입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청도, 심양, 광주, 천진 등 연해개발지역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고, 점차 베이징, 심양, 청도, 상하이 등 지역에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는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진출하게 되

4) 沈阳市政府网 / 沈阳民族宗教 / 沈阳民族 (<http://www.symzzj.gov.cn/symzzj/symz/mzgk/list.html>)

5) 김범송, 2011, 「개혁개방 후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 정체성의 변화」, 『개혁개방 30년 이래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족출판사, 177쪽.

었다. 초기에는 한국 내에 연고가 있는 이들만이 초청장을 받아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이후 많은 중국동포가 한화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중개업체에 지불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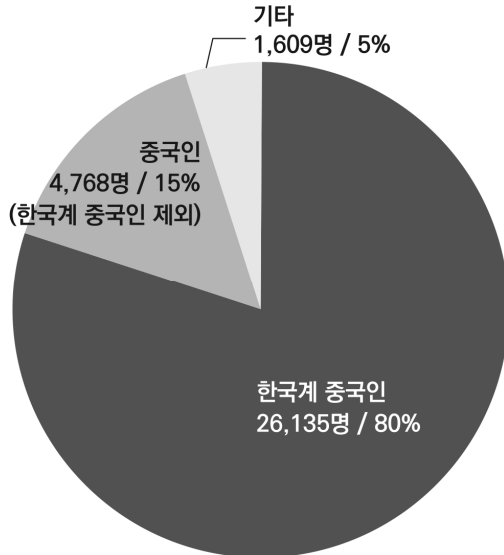
2_가리봉-대림의 환경

1) 중국과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동포타운, 구로구 가리봉동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거주현황 보고(안전행정부 2014년 1월)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415,05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영등포구 거주자 58,922명 중 대림동은 25,681명(대림 1동-5,366명, 대림 2동-13,853명, 대림 3동-6,46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외국 국적자는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동포의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은 1965년 구로공단 조성 이후 한국 근대 산업의 기틀이 된 지역으로, 1970년대 중순 11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 생산한 물품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0%를 웃돌던 공업단지가 있다. 7,000여 가구가 밀집한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던 근대화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 생산업의 다양화와 섬유, 경공업 분야의 쇠퇴로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뒤 가리봉동은 중국동포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현재 가리봉동은 거주 인구의 약 30%가 중국동포 집성촌으로 특화된 지역이 되었다. 교통의 편리성(남구로역(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인근), 저렴한 생활공간 확보 가능, 공단 및 상업지역과의 근접성으로 취업, 정보 수취가 용이한 점 등이 한국 사회에 낯선 동포들의 집거지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구로구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 즉 중국동포가 26,135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 32,512명 중 80%를 차지한다.



[그림 1] 구로구 외국인 현황

1964년 구로공단이 조성된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노동자 신분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혼인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구로 지역에 거주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구로 수출산업공업단지가 구로동과 가리봉동에 있고,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리봉동 일대에 형성된 일명 ‘벌집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지가 되고 있다. 또한, 가리봉동에는 중국동포타운을 중심으로 주거권과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중국인과 중국동포가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에는 국내 최초로 설립 인가를 받은 다문화 대안 초등학교 ‘지구촌학교’가 있다. 지구촌학교는 학부모의 등록(합법체류) 또는 미등록(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입학시켜 일체의 비용 없이 다문화, 다중언어 등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구로구는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동포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구로구는 전체 면적의 34.6%(6.97km²)가 준공업 지역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공

업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60년대 구로공단(한국수출산업공단)의 설립과 함께 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로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이 2000년 11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고, 530개 벤처업체가 입주한 국내 벤처집적시설 1호인 키콕스(KICOX)벤처타운이 자리를 잡았다. 이를 계기로 구로공단은 지식정보산업 중심 첨단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이 구로구 전체 산업의 67%를 차지(2014 기준)한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 수 기준 32%를 차지하므로 구로구의 전략 산업으로 파악된다.

구로구 가리봉동은 앞으로 주·상·공이 조화된 서울 서남권이 산업·경제·유통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업 중심축을 제조업 위주에서 신산업(디지털 IT+지식정보+문화융합)으로 전환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한족까지 아우른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중 영등포구는 국내 중국동포들의 네트워크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동포 밀집지역 중에서도, 영등포구는 총인구의 약 11.8%가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영등포구 등록인구 현황(2016.1.1. 기준)

(단위: 명)

면적	전체 인구	외국인 인구	한국계 중국인
24,56km ² (서울시 4.05%)	378,504	39,307	32,057

영등포구는 늘어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를 개관해 교육·복지·문화 분야 사업을 통해 거주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지원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외국인 거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운전면허 교육, 한국 및 다문화 이해 특강, 생활법률 강의 등이 있다. 특히 국내 적응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은 매년 분기별 11개 반씩 편성해 현재까지 13,000여 명이 수업을 들었다.

영등포구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지역은 대림동 일대인데, 그중에서도 대림역 11,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동포 상가지역은 일명 ‘대림 차이나타운’으로 불린다.

그러나 대림동 일대는 ‘대림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공공 부문에 대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즉, 중국동포 네트워크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곳이 일종의 낙후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영등포구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였다. CCTV 24개와 보안등 19개를 신설해 방범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포장 및 대림중앙시장 천막 개선 등 가로환경도 개선했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중국동포와 선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을회관인 ‘주민공동 이용시설(디지털로37나길 21)’을 만들어,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공동체 의식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동포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상담이나 정보교류 등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동포들은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과 자녀교육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중국동포 학부모들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교육과 정서 함양을 바르게 받을 수 없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은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킨다. 중국동포 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소통의 창구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은 대림국제학원이 유일할 정도로 심각하다.

3_가리봉-대림의 선주민

가리봉은 마을 주위의 작은 봉우리가 이어져 마을이 되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또 다른 설은 골(곡(谷)), 즉 고을과 같은 의미를 갖는 ‘갈’ 또는 ‘가리’, ‘갈라졌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⁶⁾

가리봉동과 대림동은 70~80년대 근대화의 물결에 따라 수도권 산업 역군들의 보금자리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거주가 당연하게 되었다. 일시적으로 수도권 산업의 쇠퇴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있었으나,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1호선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주거 환경이 형성되었다. 또한, 여의도의 금융, 상업지역과 영등포동의 중소규모 공장들을 인근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일대는 점차 발전하였다. 도시계획 정책에 따라 옛 구로공단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G밸리 등 IT산업의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는 첨단 산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가리봉동은 재개발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상당기간 내재된 채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재개발의 바람으로 토지와 건물주의 잦은 변동 등 가리봉동의 실질적 선주민의 이탈이 이어지고 현재는 1990년대 무렵부터 유입된 1세대 중국동포들이 20여 년이 지나도록 삶을 영위하고 있다. 즉, 이들이 지역의 선주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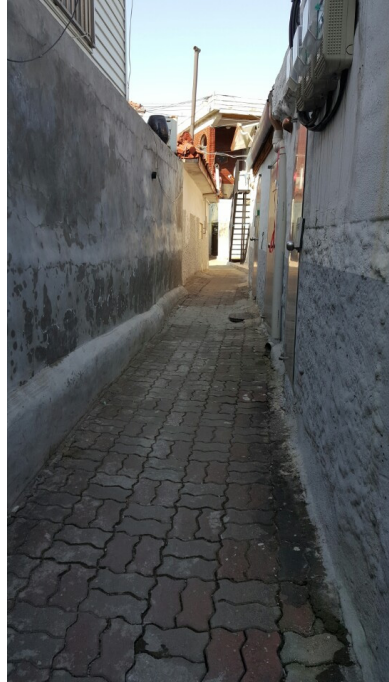
가리봉동의 지역적 협소와 장기 거주 중국동포들의 생활 여건 개선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대림동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급속도로 중국동포타운화가 이루어졌다. 대림동은 현재 5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중학교가 있다.⁷⁾ 이 중에서 대동초등

6)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학교는 재학생의 70%를 웃도는 학생이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이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 1] 가리봉동 골목거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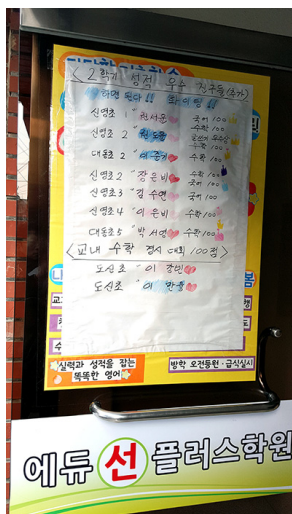


[사진 2] 가리봉동 또 다른 골목거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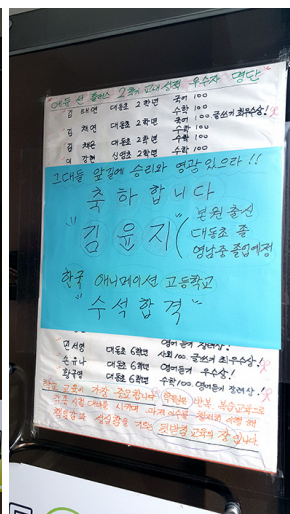
대림역 인근의 우성아파트의 주민 대다수는 지역 선주민이며 대림 2동 중앙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은 중국동포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학부모들에게는 여러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초기에 불거진 공공질서 문제, 거리정비 문제 등은 지자체와 거주민들 간의 노력으로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이다. 하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을 즈음하여 치안과 거리질서 차원의 경찰 계도활동이 활발하

ㄱ) 신영초등학교, 영림초등학교, 신대림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도신초등학교, 대림중학교, 영남중학교

다. 개인 사생활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된 한국 사회는 공동생활, 집단적 사고 등에 익숙한 동포들의 연대감과 생활방식을 낯선 모습으로 여기게 된다. 소란스럽고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대림동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접변 지역이며 상호 이해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곳이다. 어린 자녀를 둔 선주민의 젊은 부모들이 이러한 대림동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 3] 대림동 한 학원의 모습



[사진 4] 대림동 또 다른 학원의 모습



[사진 5] 언니네 작은도서관 (서울시 여성회)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그들 나름으로 교육과 여가생활에 대한 교류를 하며 지역민으로서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거주공간과 생업 공간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경제활동의 혜택은 선주민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03

재한조선족이야기

- 1_삶의 터전 가리봉과 대림
- 2_단체활동과 지역 네트워크

03 | 재한조선족이야기

1_삶의 터전 가리봉과 대림

중국동포의 삶의 터전인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⁸⁾

첫 번째는 이들의 국내 거주 초기 시점이 90년대 후반,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저렴한 단기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기인했다.

두 번째는 국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공장들이 이전함에 따라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집단 주거지인 이곳이 지역 공동화될 위기였으나,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싼 임대료 때문에 중국동포의 거주가 용이했으며, 주로 혼자 입국하여 생활하는 조선족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세 번째는 기존 가리봉동에 형성되어 있던 건설 관련 일용직 인력시장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동시에 교통 편의성이 주거에 적합했다.

네 번째는 조선족들의 한국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초기 이주자, 후속 이주자, 중국에 남아있는 비이주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이주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중국동포들의 삶의 터전인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거주지 및 동포타운은 이주 초기의 정부시책과 한국 사회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졌던 시기와 현재 상호 소통과 공존의 시기를 가지는 발전 단계를 거치며 형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에 큰 바람을 몰고 온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둔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 시행이었다. 2002년 3월 12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02.3.25~5.29)

8) 지충남·정소영, 2013, “재한조선족의 이주와 집거지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15~16쪽. 참조에 재구성.

을 설정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 차년도 3월 21일까지 출국을 유예해준다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 방지 등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컸는데, 이때 중국인 15만 1천 명이 신고했으며 그중 중국동포가 10만 명을 넘었다.

이후, 서울에서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가리봉동은 일명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활기가 넘쳤고, 상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골목 안에 있던 식당들이 큰 거리로 간판을 내걸었고, 가리봉 재래시장은 중국 연변의 재래시장과 똑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초기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이주정책상 체류자격의 제한 때문에 구직 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기관이나 단체보다 종족적 연결망이 이루어져 있는 고향 출신자가 경영하는 식당 등 상점을 통해 유대를 구축해 나갔다.⁹⁾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노래방이었다. 2002년 조치가 있기 전 5~6개에 불과하던 노래방이 2002년 후반 20여 개가 더 생겨난 것이다. 가리봉동에서 노래방이 크게 늘어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중국동포들이 과거와 달리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 및 고향 친구들과 과 어울려 노래방을 즐겨 찾았기 때문이다.¹⁰⁾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에 제2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2003년 8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이었다. 2003년 9월~11월 말, 중국동포 중 3년 이상 체류자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3년에서 5년 사이의 체류자는 중국에 출국했다가 6개월 후 재입국하여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합법체류 및 취업활동을 할 수

⁹⁾ 이창호, 2013, “이주민 일상속의 사회적 연결망연구: 필리핀, 베트남 및 중국 조선족 이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권2호,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¹⁰⁾ 중국동포타운신문, 2005.04.05, (63호) 「중국동포 제2의 고향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참조해 재구성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

있게 되었으며, 5년 이상 체류자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3년 12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법무부 출입국은 사업장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했고, 이는 가리봉동에 거주하던 중국동포들이 단속을 피해 서울 여러 지역과 지방 등으로 흩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과거 이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던 신림동, 신대방동 등 새로운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국동포들이 가리봉동을 떠나고,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가리봉동의 상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가리봉동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중국동포들은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가리봉동 상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¹¹⁾

당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는데, 까다로운 고용 절차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으며,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동포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 활동에 대한 무지로 인해 주얼리(보석), 통신사업으로 알았던 곳에서 다단계 사업 등 좋지 않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포도 적지 않았다. 이는 경마와 같은 도박성 게임에 이들이 쉽게 빠져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4~2005년에는 노래방, 식당, 식품점 등 가리봉동 상인들의 성금이 모여 중국동포를 위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2004년 2월 설날맞이 중국동포 노래자랑과 2004년 9월 추석맞이 한·중문화 대행사, 2005년 추석맞이 가리봉 노래자랑이 바로 그것이다.

명절을 맞아 이러한 문화행사를 시행한 것은 이곳 일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었다. 불법체류자가 많이 거주하고,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박힌 가리봉동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고객의 다

11) 위의 신문 기사 참조해 재구성.

수가 중국동포를 상대로 하기에 가리봉동 상인들이 동포와 함께 더불어 살고, 가리봉동을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취지였다. 이것이 상당한 호응을 받아 2004년도에는 가리봉동의 치안이 위험하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곳이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바로 2006년 중반 이후부터였다. 과거 불법 체류하던 중국동포들이 자진 출국 1년 만에 합법적 신분으로 다시 입국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합법체류 신분이 된 중국동포 중 일부가 공권력, 즉 경찰들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킨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과하게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담배꽂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경찰의 제재가 이어졌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경찰과의 잦은 말다툼이 생기기도 했는데, 이는 합법적 신분으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조금 과하게 받아들여져 벌어진 현상이었다. 치안은 나아졌지만, 조금은 소란스러운 곳이 된 것이다.

게다가 2007년 4월경, 가리봉동에서 ‘연변흑사파’조직 일당들을 대거 붙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연변흑사파가 존재하며 상당히 위험한 조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과장된 보도라고만은 여길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광역 수사대가 조직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제압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한 것이며 다소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측면도 있었다.

이 사건은 대표적 중국동포들 밀집거주 지역인 가리봉동을 조직폭력집단의 발원지이자 온상지처럼 부각시켰다. 이는 가리봉동을 화합과 공존의 마을, 중국동포타운으로 가꾸어가고자 했던 중국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¹²⁾ 이렇듯 한국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을 계기로 가리봉동, 대림

12) 위의 신문 기사 참조해 재구성.

동의 중국동포타운이 형성되어왔다. 본래 이곳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에 공단 집거지로서 지방과 시골에서 상경한 근로자들이 발붙인 쪽방촌이었고, 한강 기적 창조에 기여한 역사를 남겼다. 하지만 한국이 산업 화에서 정보화시대로 이행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곳은 썰렁해지기 시작했 고 1990년대 들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코리안 드림에 나선 조선족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 작해 현재는 중국동포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동포타운은 그야말로 중국동포들의 애환이 깊이 묻어 있는 곳이다. 낮에는 3D업종에서 피땀을 흘리고 저녁이면 고향 친구들과 모여 이 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고향을 그리는 곳이었다. 중국동포타운은 중 국동포들에게 실로 고향과 다를 바 없는 안식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불법체류자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던 시절, 인권적 침해를 겪은 중국동포들에 의한 여러 사건이 발생한 것 은 사실이다. 하루 저녁에 세 건 이상의 상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의 과도기를 겪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가족단위로 이주한 중국동포들을 비롯하여 친척들 모두 이주한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예전엔 혼자 지내야만 했던 중국동포들의 자제력이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은 가족, 친척 단위의 모임이 활성화되니, 개인적인 절제가 이루어져 사건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국동포타운의 큰 변화이다.¹³⁾

그러나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타운의 진정한 변화는 최 근 선주민과의 소통의 벽을 허물고 상호 공존을 목표로 한 지역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13) 김정룡, 2011.9.16, 『동북아신문』, 「변화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거리」 참조해 재구성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6>)

2015년,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대림동은 ‘서울 속 작은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동포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선주민과 갈등이 존재했으며 생활방식 및 의식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일종의 마을회관인 ‘주민공동 이용시설(디지털로37나길 21)’을 만들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함으로써 주민공동체 의식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특히 영등포구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방안 등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개선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업비 5억 원이 투입하여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시행됐다. CCTV 24개와 보안등 19개를 신설해 방법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로포장 및 대림중앙시장 천막 개선 등을 통해 가로환경도 개선한 것이다.

영등포구청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통해 대림동의 선주민과 중국동포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문화 장벽을 허물고 더불어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구민이 이웃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추구해 나가도록 한다고 강조했다.¹⁴⁾

이처럼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공존 방안 추구를 위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의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식맵 구축을 후반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2_단체활동과 지역 네트워크

한국 내 중국동포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정

14) 한중동포신문, 2015.12.16, 「『서울 속 작은 중국』 대림동, 주민-中 동포 마음의 벽 허문다」 참조해 재구성 (<http://www.kcn21.kr/>)

착 초기, 이를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소모임 형식으로 이어지거나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동포사회 내·외부에서 문화예술행사활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¹⁵⁾

하지만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동포의 생활이 안정화되면서 2010년에 들어서 새로운 문화예술행사활동 단체가 설립되고 있다. 단체의 성격도 동호회의 성격에서 중국동포의 정체성을 한국 사회에 바로 알리는 목적을 가지는 등 사회적 목표를 포함한 단체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문화예술행사활동은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¹⁶⁾

방문취업제 이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문화예술행사활동은 2004년 9월 28일 추석 문화행사로부터 시작됐다. 추석 문화행사는 재한조선족 유학생이 주최하여 중국동포를 위한 문화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전통풍물공연, 연변가무단 출신 예술인, 유학생, 동포가수의 합동 망향제였다.¹⁷⁾ 이 문화행사에서 가리봉동 상인들은 이곳에 온 중국동포들에게 추석 송편을 나눠주고 ‘추석 전야 촛불축제’와 화합과 공존의 불꽃놀이 등을 했다. 또한, 28일 추석 당일엔 구로공단 내 위치한 산업단지 운동장에서 구로 지역민(한국인)과 중국동포의 화합을 위한 특별 문화공연이 펼쳐졌다.¹⁸⁾

이 외에 2005년에 ‘2005 귀향아리랑문화공연’으로 법무부 3.15 특별조치를 기념한 귀향아리랑 문화축제를 개최해 연변가무단과 연변 구연단 등 중국동포

15) 재한 조선족사회의 단체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두 연구에서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① 박우의 「조선족의 한국이주와 정착 20년: 이주노동자와 동포 사이에서」(2012년 7월 9일 재외한민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 ②김용선의 「재한조선족사회와 대립동, 한마음체육행사」(『조선족사연구』 2015, 중국조선민족사학회, 2015).

16) 옥지혜, 2016. 2, 「재한조선족사회 문화예술단체와 활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4쪽. 참조해 재구성

17) 옥지혜, 20쪽.

18) 중국동포타운신문, 2004.9.5, 「2004년 9월 28일 추석문화행사는 조선족의 위상을 보여주는 날」 참조해 재구성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2006년엔 중국동포 누드사진작가 이종걸의 누드 사진 작품 개인 전시회가 충무로 포토랜드갤러리에서 열렸다.

방문취업제 이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문화예술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는 미술, 문학 부문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 문학 부문에서도 재한 조선족 작가에서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문학적 공유를 통해 조선족 작가와의 교류도 이루어졌다.¹⁹⁾ 또한, 조선족 출신 화가의 활동이 시작되고 문학을 배우고자 하는 자체적인 모임이 생겨 점차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로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체육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다 2009년 5월 3일 중국동포 한마음협회에서 개최한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려 중국동포 체육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및 재한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 및 친목 교류를 통한 소속 팀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²¹⁾

중국동포 문화예술 활동은 2010년 즈음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예술인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에서 예술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재한조선족사회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모습을 보였다.²²⁾

19) 동북아신문, 2009.6.19, 「제2회 ‘동북아글마당’ 모임 서울서 열려」 참조해 재구성

20) 옥지혜, 25쪽.

21) 동북아신문, 2009.05.18, 「중국동포 한마음 체육대회」 참조해 재구성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10년 체육활동에서도 중국동포 한마음협회가 ‘한마음 배구단’을 설립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 한마음협회는 한마음협회 산하에 축구단, 자원봉사단, 산악회, 자율방범대, 한·중문화 탐방단, 음악동아리 등 다양한 단체를 결성하여 친목과 창조적 봉사정신을 함양한 동포사회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해 나아가기 시작했다.²³⁾ 2012년의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재한동포서화협회’라는 서예 관련 단체가 생성된 이후 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서예 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하는 등 관련 활동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고,²⁴⁾ 2013년부터는 중국동포사회에서 음악, 무용 분야 등의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인재들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예로 2013년 12월에 ‘제1회 중국동포인재군영만회(人才群英晩會)’가 열렸는데 “단체/언론 간의 상호 교류와 우호증진을 통한 화합의 인재망(網)을 이루고자 동포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인 교수, 각 단체장, 언론사 대표, 기자 및 사회 활동가, 음악인, 가수, 무용가, 스포츠계 대표, 문화인 등 200여 명을 초대하였다.”고 행사 목적을 밝혔다.²⁵⁾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체육 활동에서도 2013년 한국 거주 조선족 동포들이 결성한 ‘중국동포축구연합회’가 한국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주최의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동포축구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 전

22) 옥지례, 28쪽.

23) 중국동포타운신문, 2010.03.23, (171호)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한마음배구단’ 설립」 참조해 재구성 (<http://www.dongpota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

24) 동북아신문, 2012.05.01, 「재한동포서화협회공식출범」 참조해 재구성

25) 중국동포타운신문, 2013.12.16, 「2013년 제1회 “중국동포인재군영만회(人才群英晩會) 성료」 참조해 재구성

국축구연합회(회장 김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체육 축구를 통한 공익 사업, 동호인들의 건강과 행복, 화합 등을 목적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다지며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함께 펼쳐가게 되었다.²⁶⁾

이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축구연합회’는 축구를 한민족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하고자 대림운동장에서 ‘KC리그2013’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개막식에는 올 리그에 참여하는 연합회 소속 13개 축구단 단원, 재한동포총연합회 회원 및 재한중국동포 단체, 언론 대표, 영등포구 의회 부의장,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²⁷⁾

2014년에 열린 가장 큰 문화예술행사로는 ‘제1회 중국동포민속문화대축제’가 있다. ‘사랑·화합·나눔·희망’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한민족의 전통 민속놀이인 씨름, 널뛰기, 장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 및 참여 마당 등 재한조선족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즐기는 장을 마련하였으며,²⁸⁾ ‘백두산 예술단’과 ‘국제문화예술진흥회’ 등 새로운 문화예술단체도 설립되었다.²⁹⁾

더불어 2014년 체육활동에서는 ‘제1회 중국동포&다문화댄스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려 체육활동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국인, 중국동포, 다문화인(이주민), 새터민(탈북이주민), 고려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제1회 중국동포&다문화댄스스포츠페스티벌’ 대회가

26) 중국동포타운신문, 2010.02.21, (242호) 「중국동포축구연합회, 한국내 축구대회 참가자격 얻어」 참조해 재구성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

27) 중국동포타운신문, 2013.04.14, (245호) 「중국동포축구연합회, ‘KC리그2013’ 개막식 개최」 참조해 재구성 (<http://www.dongpotow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

28) 중국동포타운신문, 2014.01.16, 「“2014 새해맞이 중국동포 위로잔치” 성황리에 개최」 참조해 재구성

29) 옥지혜, 36~37쪽.

2014년 12월에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렸다.

2015년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재한동포문인협회’가 5월 ‘동포문학 3호’ 출간과 함께 ‘제1회 한중문화예술대전’을 개최하였다.³⁰⁾ ‘한중문화예술대전’에는 조선 족 문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문인과 미술, 서예가가 함께했다. 동포 사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이 목적이었다.³¹⁾

또한 2015년 체육활동에서는 세계화인연맹이 주최하고 중국동포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한 제8회 세계화인절 축제에서 중국동포배구단인 월드스카이가 세계화인 축제 배구 경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화인절 축제였고 중국동포단체장협의회가 주관해서 처음으로 열린 대회였다.³²⁾

이상과 같이 중국동포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단체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국동포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지식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³⁰⁾ 동북아신문, 2015.06.01, 「제1회 한중문화예술대전·동포문학 3호 출판기념회」 참조해 재구성

³¹⁾ 옥지혜, 위의 책, 38쪽. 참조해 재구성

³²⁾ 동북아신문, 2015.04.11, 「중국동포배구단, 월드스카이가 세계화인축제 배구경기서 좋은 성적 따내」 참조해 재구성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28>)

04

가리봉 - 대림의 지식맵 구축

- 1_지식맵의 구조와 방법
- 2_중국동포타운 위키
- 3_지식맵 형성

04 | 가리봉 - 대림의 지식맵 구축

1_지식맵의 구조와 방법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을 위하여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중국동포타운 영역을 크게 8가지의 클래스로 나누었다. 중국동포타운에서 중요 역할을 맡은 인물을 비롯하여 많은 중국동포가 활동하고 이용하는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표 3]과 같이 ① 인물, ② 식당, ③ 상점, ④ 행사/활동, ⑤ 단체/협회, ⑥ 기관/시설, ⑦ 문헌, ⑧ 개념 정리 등 8개의 클래스로 나누었다.

[표 2]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대분류

대분류코드	대분류명
C1	인물
C2	식당
C3	상점
C4	행사/활동
C5	단체/협회
C6	기관/시설
C7	문헌
C8	개념 정리

특히, 대분류코드 C2인 식당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분류로 한식당, 중식당, 패스트푸드, 기타의 4가지로 구분했다. 대분류코드 C3인 상점은 중분류로 편의점, 식품, 공산품, 오락시설, 일반행정, 숙박, 미용실, 유흥, 서비스 등으로 나누었다. 행사/활동(C4), 단체/협회(C5)는 중분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중국동포타운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많은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실제 단체장/협회장들을 만나 확인하고 새롭게 분

류할 예정이다. 기관/시설은 중분류로 웨딩홀, 종교시설, 의료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은행, 공연시설,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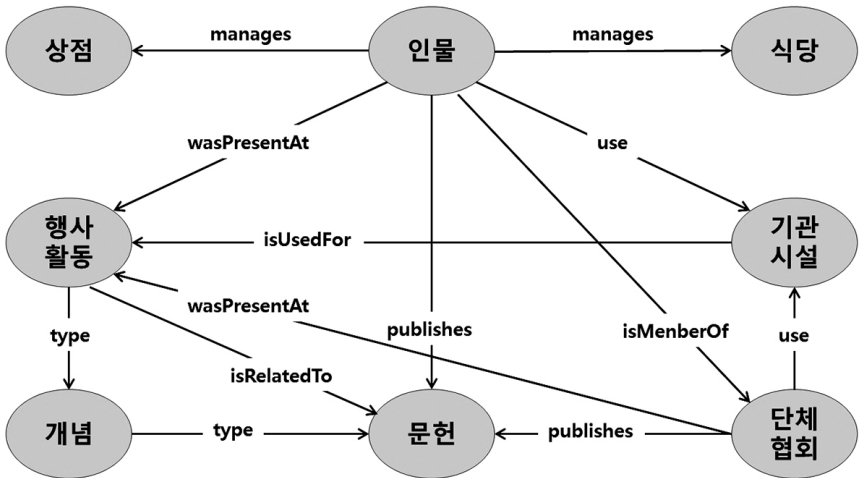
[표 4]는 중분류의 내용으로 대분류 코드로 구분된 클래스에 따르는 하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분류를 기준으로 소분류 항목으로 나뉘게 된다.

[표 3]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중분류

중분류코드	대분류코드	중분류명
m101	C1	인물
m201	C2	한식당
m202	C2	중식당
m203	C2	패스트푸드
m204	C2	기타
m301	C3	편의점
m302	C3	식품
m304	C3	공산품
m305	C3	오락시설
m306	C3	일반행정
m307	C3	숙박
m308	C3	미용실
m309	C3	유흥
m401	C4	행사활동
m501	C5	단체
m502	C5	협회
m601	C6	웨딩홀
m602	C6	종교시설
m603	C6	의료기관
m604	C6	행정기관
m605	C6	교육기관
m606	C6	은행

중분류코드	대분류코드	중분류명
m607	C6	공연시설
m608	C6	주차장
m609	C6	공공화장실
m701	C7	문헌
m801	C8	개념 정리

이상과 같은 중국동포타운의 클래스 분류를 기반으로 온톨로지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테제(Protégé)를 이용하여 클래스 관계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중국동포타운 클래스 관계도

[그림 2]와 같이 대분류 간의 연관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각 항목 간의 연계를 통해 지식맵은 많은 정보가 순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맵을 통한 정보 전달은 단일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결된 다른 정보의 습득 및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식맵 구축을 위한 DB 설계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의 관계형 DB 설계와 온톨로지를 통해 지식맵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온톨로지는 위키백과를 만들 때, 정보의 연관성을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2_중국동포타운 위키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위키에는 구글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서로 링크로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은 중국동포타운 위키에 접속한 화면이다.



[그림 3] 중국동포타운 위키 접속 화면

메뉴에서 가리봉-대림 지식맵을 클릭하면 중국동포타운과 관련된 구글 지도 및 대분류코드 클래스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대문

가리봉-대림 지식맵

최근 바뀐

임의 문서로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뀐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토론

175.116.131.136 이 IP 주소의 사용자와 토론 계정 만들기 로그인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검색

중국동포타운

목차 [숨기기]

1 지식맵(구글지도)

2 클래스 분류

2.1 인물

2.2 식당

2.3 상점

2.4 행사/활동

2.5 단체/협회

2.6 기관/시설

2.7 문헌

2.8 개념정리

지식맵(구글지도)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링크를 클릭하여 지식맵으로 이동)

https://www.google.co.kr/maps/@37.488658,126.8886932,16z/data=!4m2!1szash5CtCh04.k8Z5vd_1.o!1e

클래스 분류

인물

식당

상점

행사/활동

단체/협회

기관/시설

문헌

개념정리

이전으로

[그림 4]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대분류코드 화면

대분류 코드 분류 메뉴에서 식당 항목을 클릭하면 식당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는 식당을 클릭한 화면이다.

[그림 7]은 북경식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중에서 전가복 식당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다른
가리봉-대림 지식맵
최근 바뀐
임의 문서로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바뀐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이 문서 인출하기

☎ 175-116-131-136 이 IP 주소의 사용자와 토론 계정 만들기 로그인

문서 토론
위키 원본 보기 역사 보기 검색

전가복

전가복(全家福)

"중국3성의 중국정통요리, 대림동 全家福" "은 가족이 다 행복하다"는 이름의 요리란 뜻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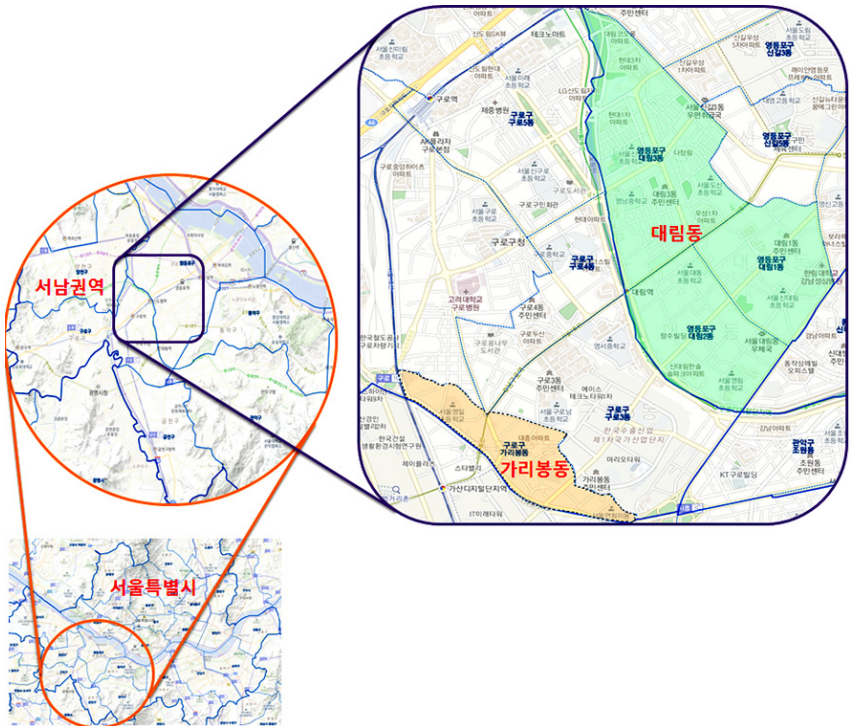


[그림 7] 중국동포타운 대분류코드 세부 정보 화면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위키 콘텐츠에는 구글맵에서 보이는 각 업체 및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게 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는 중국동포타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많은 이에게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직접 가지 않고도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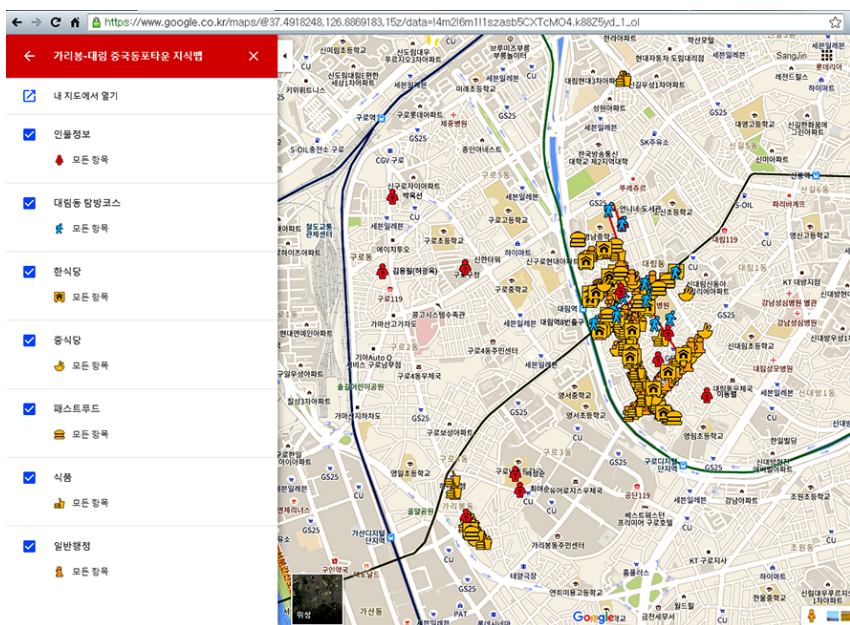
3_지식맵 형성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은 서울의 서남권역에 있다. 또한, [그림 8]과 같이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그중에서도 대림 2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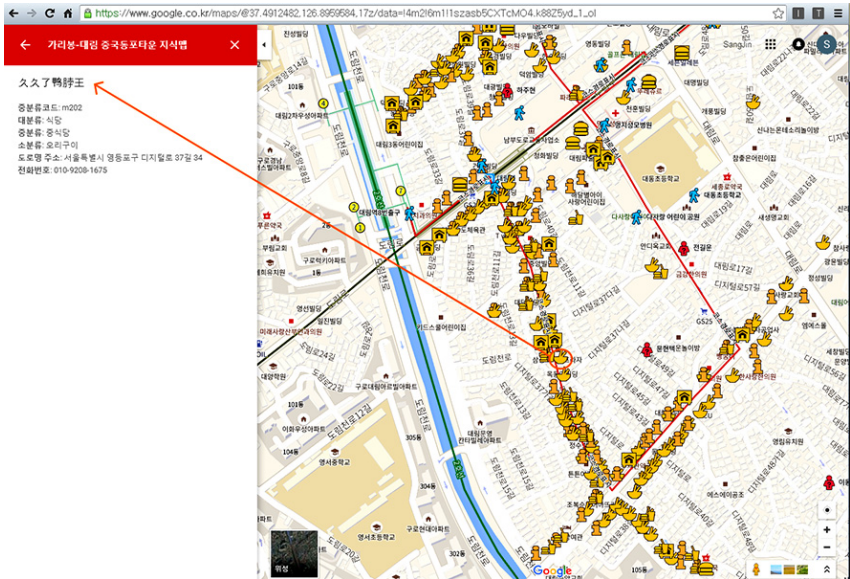
[그림 8]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 위치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의 시작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지식맵을 통해 중국동포타운을 찾는 내국인, 중국동포 및 외국인을 위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한 의미로 삼는다. 따라서 지식맵 내의 항목이 산발적으로 많이 나열되는 소분류보다는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지식맵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9]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시작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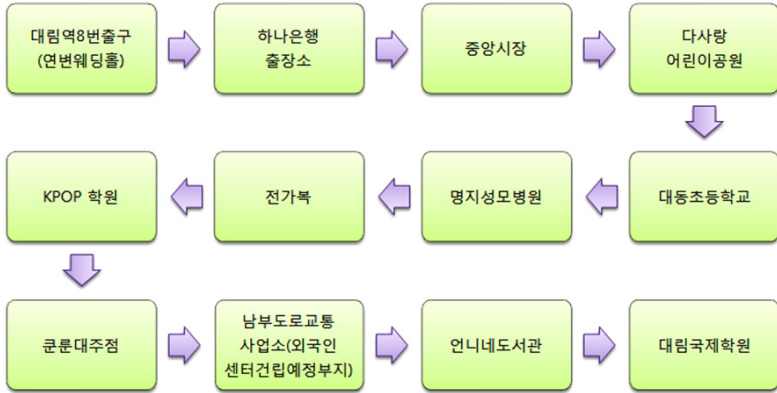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에서 접속하면 [그림 9]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좌측에는 중분류 항목이 나타나며, 항목 아래에는 해당 중분류에 대한 기호가 표시되며, 이들 기호가 실제 지도 상에 표시된다. 중분류 항목 앞의 체크 박스를 해제하면, 지도 상에서 해당 중분류 항목과 관련된 기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살펴보면 된다.



[그림 10]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사용화면

[그림 10]은 지도상에 위치한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지식맵의 항목 내용이다. 항목별로 이미지 및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링크를 통해 위키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는 해당 항목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은 이상과 같은 중분류 항목에 대한 각 세부 내용 소개 이외에도 탐방로 등의 기획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탐방과 관련된 정보는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을 대표하는 곳을 기점으로 시간대별, 장소별, 테마별 주제를 통해 탐방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1]은 대림동 중국동포타운에서 2시간 코스로 기획된 대림동 탐방 내용이다.



[그림 11]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탐방로 코스 기획(안)

탐방코스를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대림동 중국동포타운 탐방로 코스 지도(안)

05

결 론

- 1_지식맵 활용을 통한 활성화방안
- 2_정책제언

05 | 결론

1_지식맵 활용을 통한 활성화방안

‘조선족이야기를 담은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은 지역에 자리한 동포 단체와 기관, 음식거리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조선족이야기를 담는다. 즉 이 지식맵은 스토리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의 가리봉-대림을 알리는 이정표인 것이다. 동포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돕게 하는데 이는 선주민과 동포 주민과의 이해와 소통을 여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기피 현상을 가진 국내 다른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에도 공생방안의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지식맵은 관계망을 통한 정보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기에 끊임없는 재생산과 활용이 가능하며 빅데이터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지 28여 년이 되어가는 중국동포들은 국내외 복합적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삶의 형태를 구축하며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중국과 한국, 복수의 지역적 정체성과 조선족 문화라는 특수한 기억이 존재하는 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지식맵을 구축해, 이를 통해 이문화 접변 지역의 문화,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식맵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지식맵의 활용과 지속적 유지 보수는 가리봉-대림 동포타운 지역을 서울의 명소로 확립시킬 뿐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_정책제언

연구진은 지식맵 구축 및 활용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명동, 인사동과 같이 거리 초입에 정보 센터를 설치

조선족의 문화, 역사 등을 소개하고 소통하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이야기방이 개설돼야 한다. 누구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미지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주의)는 서로를 모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삶의 방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동포들의 애환을 공감할 때 중국동포들에 대한 혐오와 기피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환경적 포용을 민족적 특성으로 가진 국가이다. 한민족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유의 정체성인 “정”이 있기 때문이다.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국동포들이 존재한다. 듣고, 보고, 이해하는 사회적 경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열린 이야기방은 새로운 화합의 장이 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세계는 중국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동포에 관심이 매우 높다. 가리봉-대림이 지식맵을 통한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중국동포가 함께하는 문화센터가 상설화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서의 위상을 얻게 될 것이다. 선주민과 이주민인 중국동포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특별함은 명동, 이태원, 인사동 등과 더불어 볼거리와 이색 문화가 있는 도시 ‘서울’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 간판 및 메뉴판의 이중 병기 유도

다국적 거리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속의 서울, 서울 속의 작은 중국이라는 명확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친중(親中)의 의미가 아니다. 서울시는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동시에 글로벌 서울의 개방

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을 가진 브랜드 도시임을 부각시키는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거리, 대림2동 중앙시장에 위치한 상점의 간판은 중국어 혹은 한국어로 별도 표기되어 있다. 명동이나 인사동에서 이를 병기하는 업체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 중국어로만 표기되어 문화적, 언어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도로 노면 및 관공서 건물 등의 외벽 도색 및 거리 표지판 설치를 통한 시각적 변화 모색

이탈리아의 관광명소인 무라노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낡고 초라했던 부분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많은 관광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도 무라노섬같이 관광도시로의 변화를 위한 좋은 예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문화마을을 형성한 곳이 있다. 부산 감전동 문화마을이 대표적이다. 가리봉-대림은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 콘텐츠로의 활용 가능성이 내재된 곳이다. 이미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각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림2동 중앙시장 통로와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 통로에 도로 노면의 색 변화 등을 통한 관광 콘텐츠화가 필요하다. 동북 3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란색 혹은 연두색 등의 색깔이 이어지는 탐방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 동포타운 문화해설사 양성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후속절차인 문화해설사 양성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동포(조선족)의 삶을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식맵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곳의 역사와 환경,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흩어졌던 민족 간의 상호 관심사와 의견을 모으고 다른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한국의 대표 도시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수 지역의 문화해설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교육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을 현장 교육의 장소로 활용

서울시는 중국동포타운 지식맵을 기반으로 지역 전문가 및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중국 문화 및 중국동포 문화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특별기획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문화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지역 내 거주민들과 동포들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선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객은 이문화 접변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학습할 수 있다. 조선족 이야기를 담은 가리봉-대림 지식맵 구축과 그 활용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글로벌 서울의 모습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범송, 2011, “개혁개방 후 인구이동에 따른 조선족 정체성의 변화”, 『개혁개방 30년 이래 조선족사회의 변화와 발전』, 민족출판사.
- 김용선, 2015, “재한조선족사회와 대림동, 한마음체육행사”, 『조선족연구』 중국조선 민족사학회.
- 김우경, 2015, “재한중국동포단체연구”, 『한민족공동체』, 제23호.
- 리진산, 2006, 「중국 한겨레 사회 어디까지 왔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박금해, 2012, “중국조선족교육 그 현황과 과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3권 1호.
- 박 우, 2012, “조선족의 한국 이주와 정착 20년: 이주노동자와 중국동포 사이에서”, 재외한인학회 국제학술행사 발표.
- 옥지혜, 2016, 「재한조선족사회 문화예술단체와 활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윤 청, 2011, “료녕성 조선족교육 현황과 발전전망 연구”, 『조선족 언어문화교육의 발전전략』, 민족출판사.
- 이승률, 2007, 「동북아시대와 조선족」, 박영사.
- 이창호, 2013, “이주민 일상속의 사회적 연결망연구: 필리핀, 베트남 및 중국 조선족 이주민의 사례를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7권 2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 지충남·정소영, 2013, “재한조선족의 이주와 집거지 형성에 관한 고찰”,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15~16쪽. 참조해 재구성.

황유복, 2009, “중국조선족의 문화공동체”, 『한반도 제3의 기회』, 화산출판사.

황유복, 2002,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재조명」, 료녕민족출판사.

심양시정부 <http://www.symzzj.gov.cn/symzzj/symz/mzgk/list.html>

동포타운신문

동포세계신문

동북아신문

한중동포신문

부록

부록 1_구술자료

1_중국동포 구술 채록 명단

[표 4] 중국동포 구술자 명단

번호	구분	출신지	성별	직업/기타
1	A	흑룡강성 하얼빈	여	중국동포단체장 교육자
2	B	요녕성 요양	여	중국동포단체장
3	C	연변자치주 길성촌	남	동포위원회 수석부의원장 중국동포 협회장
4	D	연변자치주 용정	남	중국동포언론사 주필
5	E	길림성 훈춘	여	초등학교 다문화교사
6	F	흑룡강성 밀산	여	식당 경영
7	G	한국	남	중국동포언론사 편집장
8	H	흑룡강	여	여성단체 대표

2_중국동포 구술 자료

A) 교육의 숲을 꿈꾸는 리더 문○○

나는 중국 흑룡강성의 조선족 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왔다. 한국의 국어대학교 학부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나 자신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끊이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현재 대림동에 위치해 있는 대림국제학원 원장으로서, 재한중국동포교사협회 회장으로서, 재한동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일개 선생이다.

나는 중국에서 살 때 조선족이라는 민족이 전혀 체감되지 않았다. 조선족이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긴 하지만, 주류사회와는 다른 주변인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했기에 불편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국 태생이었고, 어려서부터 언어 사용에 관한 원칙을 세워 굳게 지키며 살아오셨다. 그 원칙은 물론 나한테도 적용되었다. 밖에서라면 몰라도 집에서는 꼭 조선어를 사용해야 했고, 그걸 어기는 건 불효라고 생각하셨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몹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풍요롭지도 않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 아이가 셋인 집안이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빠 둘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나는 집안에 부담되지 않고자 사범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나의 선택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4년이 지나니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범학교 졸업 후 근무했던 학교는 조선족 학교였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교육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실망도 많이 했다.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결손가정 아이의 항상 궤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고, 차마 그 학교를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학교에 남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고향이 궁금하기도 했고, 20대 시절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 중국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뿌리를 찾고 뭔가 노력해서 무언가 이뤄보겠다는 희망을 갖고 한국에 정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복잡한 갈등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다. 나는 같은 민족으로 ‘한국’에 다가서고 싶었고, 한국에서 교사를 하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실은 가혹하였다. 나는 한국인이니 바로 정착하고 싶었는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부터 정체성 혼란을 심하게 겪게 되었다. 지금 나는 귀화자이다. 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짚어 말을 못하겠지만, 귀화해도 나는 역시나 조선족일 수밖에 없다.

나는 ‘조선족 민족교육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고민하다 2007년 「중국 조선족 학교 통·폐합의 원인 분석-흑룡강성 조선족학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다. 중국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여파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국내외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한족 학교 진학이 불가피하게 된 형편이었다. 조선족 학교를 졸업한 학부모들도 자녀만큼은 한족 학교로 보내는 것을 선호했고, 조선족 교사들은 보수 많은 한국 기업에 이직하고 있었다. 중국 현지의 조선족 학교가 폐교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고, 개인적으로 민족교육에 대한 우려가 아주 깊었다.

그래서 지금도 조선족 교육을 위해 대림국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내 모든 정력을 투자해서 어울림주말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대부분이 어렵게 살고 있다. 조선족들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초기 조선족들에게는 주거 환경이나 한국 입국에 대한 어려움, 법적인 소지 등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교육을 재활성화하고 싶다는 것이 조선족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비자 발급 조건이 완화되어 조선족 자녀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는데, 부모들이 먹고사는 데 급급하여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함께 했던 그 피죄죄한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나 그런 아이

들이 눈에 띈다. 이런 아이들을 이끌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결심이 내 교육자로서의 삶의 원동력이다. ‘이들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학원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교육의 매개체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한국 교육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빠른 입학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싶었다. 나는 학원이 미래 인재들이 노는 커다란 숲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대림’의 의미가 커다란 숲이다. 대림국제학원의 아이들은 지금 한국어도 잘 못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들이 될 것이다.

대림국제학원은 여느 보습학원들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보충한다. 그러나 대림국제학원의 강점은 중국 교과서로 중국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중국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갓 입국한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를 도우면서도 중국어 교재로 수업하는 이중언어교육을 고집한다. 이렇게 모든 수업이 이중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를 못해 질문을 못 하거나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러한 수업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을 거쳐 가는 학생들이 학업능력은 물론 인성도 갖춘 세계시민으로 자라기 바란다. 그래서 예의가 바르지 않은 학생들은 바로바로 지적해주는 등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에도 학원뿐 아니라 어울림주말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어울림주말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도입국 청소년과 중국동포 자녀를 위한 학교이다. 어울림주말학교는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로와 대림 사이에 있는 구로도서관에 등지를 틀고 있다. 이 학교는 구로도서관,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가 개설했고, 재한동포교사협회가 교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이 학교는 한국의 공공기관, 시민단체, 동포단체의 3자가 연합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동포들의 자녀를 위한 길일뿐 아니라 동포사회가 한국 사

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4년, 2015년에 이어 중국어, 한국어, 어울림 수업반 이렇게 3개의 반을 운영하고, 학생을 30여 명 반 아들이어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지난 10월에 재한동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동포 단체가 정말 수도 없이 생겨났지만, 서울시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은 항상 단체가 많아도 대표성이 없으니 동포를 대변하는 창구가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이에 중국동포들을 위해 활동하는 서남권 민관 협의체에 몸을 담고 있고 서울 명예 부시장인 이해응 씨가 동포를 대변하는 창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소통 창구 역할을 할 대변인단이 필요하고, 누가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순수하게 민간 주도로 재한동포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나처럼 학원 등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선거를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래서 주말 학교 10개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나섰다. 재한동포위원으로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그 학교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동포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이런 창구가 결성된 본래 목적은 나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것이다. 특히 민족교육에서는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지지체, 단체, 동포들의 힘이 필요하므로 함께 협동해서 노력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교육은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 이상설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최초의 조선족 학교를 설립한 이후 1,500개의 학교가 세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15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고, 언젠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앞으로도 나는 조선족 교육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원하고, 대림국제학원이 조선족 교육 부흥에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더 많은 분이 동참하여 새로운 교육자들이 후대양성을 이뤄가길 바라는 바이다.

B)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을 준비하는 하○○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한국생활]

나는 한국으로 이주한 지 벌써 20년이 넘는 중국동포입니다. 현재는 보험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에는 ‘한중 연예인 클럽’이라는 중국동포 중심의 문화단체 회장으로 선출되어 문화를 통해 중국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 처음에는 인천 지역에서 살았고, 대림 지역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주지까지 옮기게 된 것은 2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한국생활은 어렵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회사생활을 10년 정도 했고 건설현장에서도 5년 일했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중국동포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있게 된 것도 보았고, 나조차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입원했는데, 결국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퇴사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 지식도 별로 없어서 이런 경우 보상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기억력 감퇴가 심하고, 피곤하거나 몸이 안 좋으면 머리부터 무거워지고 증상이 재발하는데도 그냥 몸을 달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억들이 나쁘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경험 삼아 비슷한 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에게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보험업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포사회의 단체에 들어오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또한, 동포들 가운데는 한국 사회는 잘 모르고, 생업에 쫓겨서 여전히 중국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물론, 생업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면 동포사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포사회의 문화활동]

그래서 문화활동을 통해 바쁜 가운데도 생활의 충전도 하고 한국 사회와 어울릴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은 대부분 생업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한·중 연예인 클럽’에 갔다가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고 바쁘지만 정말 좋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권유로 봉사단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조금씩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그래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마음만큼 욕심껏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학력도 높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껏 가족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근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단 활동도 큰 사업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클린데이’라고 해서 주변 환경정리를 하는 날에는 멀리 인천에서 무조건 새벽차 타고 제일 일찍 클럽에 도착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대림동으로 이사 오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주기, 형식적인 활동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던 중에 회장님의 제안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번에 2대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준비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의 도움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더 많은 분이 이런 문화활동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비로 영등포구청역 근처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냈고요, 2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회원은 전부 중국동포들로 구성되었고, 모두 생업에 종사하면서 클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원도 계속 받는 중이고 일반회원은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한중 연예인 클럽’은 가수들이 많고, 외부로 가수 활동도 나갑니다. 예컨대, 나라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각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을 해주시면 행사의 성격에 맞게 가수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참여하는 가수들은 중국의 문화원 등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 다른 단체에 비

해 특히 우리 활동 회원들은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아 큰 활력은 되는데, 동포 가수들은 전문 가수 대우는 못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가수가 되려면 음반을 낸다든지,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생계와 병행하다 보니, 음반 발매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실력이 있어도 가수로서의 대접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해도 무료봉사로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회장이 취임식을 자체 행사로 진행하면서 한국 가수분 9명도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동포 가수도 한국 분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무척 좋아했고, 이런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를 통해 더욱 단결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동포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중국에서부터 원래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그때는 특히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선 너무 형편이 어려워, 좋아하는 그림을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중국에서는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중국 요동성 요양에서 출생했는데, 이곳은 고구려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드라마에서도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문화대혁명 시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은 중국 길림성 반석 출신이고, 나는 요양에서 태어나 29살까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으로서 생활이 아주 힘들었고, 조선족은 부락별로 뭉쳐서 사는 데, 내가 살던 곳은 200호가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선 동포들이 잘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점이 많이 안 좋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동포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경향은 여전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결혼이민으로 오게 되었고 현재는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중국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 이곳에 온 것이 아주 좋았고,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오히려 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여기가 내 살 곳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생업에 너무 쫓겨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주변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많았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 씨 일가의 본산인 시흥 쪽 소산서원을 자주 방문하고, 내 뿌리에 관한 관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소중합니다. 흡사 나의 뿌리, 근원을 확인받는 중요한 순간이랄까요. 그러면서도 중국동포는 어떤 존재일까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학벌이었습니다. 뭔가 하려면 다 고졸 이상이어서 제약이 많았고 어디를 가든, 학벌이 1순위입니다. 정말 검정고시라도 치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여건상 힘들어요. 비록, 중국에서 올 때 서류상으로 고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이 아니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뭐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도,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학벌 타파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동포들은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대림국제학원처럼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교가 좀 더 일찍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그런 곳이 없어서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라도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C) 사명감을 가진 선구자 - 김○○

[풍요로운 나의 중국생활]

나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양 천진 길성촌이라는 곳에서 7월 5일에 태어났다. 시골이지만 유년시절은 나름대로 풍요롭고 즐겁게 보냈다. 길성촌에는 저수지가 있어서 조금 유명한데, 우리 집은 저수지 바로 밑,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었다. 산 밑이다 보니까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다른 지역보다 낮이 좀 짧은 동네였다. 저수지가 있어서 물고기도 많았고 자연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겨울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학교 끝나서 집에 돌아올 때면 산길을 걸어야 했는데, 가로등도 없고 눈이 매우 쌓여서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학교에 다니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가족은 조양 천진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다. 도시로 이사할 때에 시골에 있던 땅을 모두 팔았는데, 만약 그때 땅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쯤 땅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조금은 아쉽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갓 이사 왔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 두부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해서 비닐 제품 공장을 경영했는데,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되어 그 동네에서 옷도 잘 입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학교생활은 나름 재미있고 अच्छ게 지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했고, 그때는 공부도 운동도 모두 잘하는 편이었기에 담임선생님도 나를 예뻐해 주셨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 기로에 섰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우리 집은 기울게 되고 내 학업도 잠시 중단해야 했다. 나는 항상 '새옹지마'라는 인생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다. 피나는 노력 끝에 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연변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원까지 다니게 되었다. 대학에서 사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조선족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조선족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한국에 유학 오게 되었다.

[동포사회와의 인연]

나의 한국생활은 서강대학교에서 시작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다. 사학 하면 서강대학교이니 최고를 추구하는 나로서는 당연히 서강대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박사 공부를 하면서 중국동포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당시 중국동포들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였기에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유학비자가 있는 석·박사 유학생들이 모여서 재한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2004년에 추석맞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이 기간에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건의하여 만 명 정도가 가리봉동에 모였다. 이 행사에서 나는 ‘망향문’을 읽었고, 이후 2기 회장을 맡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동포사회와 인연을 맺고 동포사회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 같다.

박사를 수료하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자녀가 생기자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원 선배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내가 줄곧 사명감을 가졌던 중국동포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다시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 선배와 함께 한중법률신문사를 만들었고, 중국동포들의 비자 문제, 임금 체납문제 등 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현장에서 뛰는 중국동포사회의 실천가]

이주민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지위이다. 이전에는 동포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가 많이 줄고 가리봉동과 대림동에서 규모 있는 상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 요건이 완화된 지금 중국동포사회의 추세는 정착과 경제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년 동안 구상해왔던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중국동포들의 창업에 대해 함께 고민한 뒤 경제 플랫폼 필요성을 느끼고 한중창업경영협회와 한중무역협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정착과 경제 향상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동포사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무역아카데미, 역사교육문

화탐방, 창업아카데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체육대회, 민요노래자랑, 동포이주 사진전 등 많은 행사를 해왔다. 요즘은 차세대 중국동포들의 역량 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동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화반출 때문에 중국동포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반대이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외화벌이하는 가이드들도 다수 생겨났고, 가이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동포들이 한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동포들은 이제 한중경제문화교류에서 통역뿐 아니라 교량 역할을 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왜 ‘중국동포사회’인가?]

현재 한국에 중국동포가 75만 명 있다고 한다. 조선족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인구학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조선족이 가장 많으면서도 경제적인 지위가 가장 낮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동포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포사회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공생 같은 목표들은 앞으로도 누군가가 꾸준히 헌신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중국동포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으로는 안 된다.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 요즘 중국동포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된다.

[한국청년들에 대한 바람]

언론을 너무 믿지 마라. 언론을 완전히 믿지 말고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다. 소통이 중요하다.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삼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부분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선입견이 생겨서 앞으로

본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보다 크게 앞선 것은 창의력이다. 중국에는 인재가 많지만, 환경과 체제가 개인의 창의성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인 개인들도 변화하는 삶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D) 따뜻한 마음 차가운 머리의 달필 김○○

[용정시 동불사 요구촌에서 중국동포 3세로 출생]

중국동포타운신문의 편집인인 김 소장은 중국 용정시에서 서쪽으로 50리 정도 떨어진 동불사라는 곳의 요구촌 시골 마을이 고향이다. 요구촌은 조선족들만 50여 호가 모여 사는 작은 농촌마을이었다. 동불사란 이름으로 봐서 이전에는 불교 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동불사진으로 되어 절터가 있었던 이름만이 남아있다. 김 소장의 아버지는 1917년생으로 지금의 북한 땅인 명성군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등에 업혀 중국으로 갔다. 그리고 평생을 중국 고향마을에서 사시다가 77세 때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때로 따지면 조선족 3세가 되고, 갓난아기였지만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아버지부터 따지면 조선족 2세가 되는 김 소장도 대학 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다. 김 소장이 대학을 가고자 했던 1970년대 중반의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막 끝난 시기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준비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김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3년 동안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한편, 파출소에 가서 자신의 나이를 세 살 줄인 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이를 줄여 그 당시 중국에 불었던 일본 바람으로 일본어과 진학을 꿈꿨다. 1978년도에 고향 인근에 이주해온 선생님께 일본어 기초를 배우고 보건소 선생님께서 일본어를 배워 대학입시 준비를 했다. 대학입시 준비를 시작했던 19세 때는 용정현에서 ‘만발 의사’ 공부를 1년 하여 5년간 고향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만발 의사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야 하는 지방 보건소 의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 후 김 소장은 장춘대학교 일어과에 진학하였다. 대학을 마친 뒤, 연길의 연변일중이란 영재학교의 일본어 교사로 약 4년간(1986~1990년) 재직했다. 중국에서 교사직은 ‘철밥통’이라고 하여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자리였으며, 특히 연변에서 최고 영재학교인 연변일중의 교사라는 자부

심도 있었지만,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이닥치자 그러한 명예보다는 경제적인 부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김 소장도 이러한 시세를 좇아 교사직을 사직하고 달러를 만지면 좋은 직업이라고 알려진 무역, 여행사 업무를 전전했다.

1980년대 중국은 상하이, 계림 등과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는 이미 여행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나, 베이징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여행업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조선족들이 몰려있는 동북 3성은 1990년 한·중수교와 함께 한국인들의 중국, 특히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여행 및 관광업이 시작되었다. 김 소장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1990년 한 해 동안은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다가 1991년 여행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역시 경제적으로는 교사직보다 훨씬 나은 생활이 되었다. 학교에 계속 있었으면 보람은 있었겠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김 소장은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일반 경제와 사회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때 그는 평생 글 쓰는 직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김 소장이 여행 분야에 종사했다고 해도 당시는 모든 사업이 국영체제여서 개인이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쨌든 무엇이던 시작하면 치밀하게 하게 하는 김 소장은 33세 때 벌써 중국 정부의 관광국장까지 올라가 맡은 여행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 1996년까지 만 5년간 정부의 여행 분야에 종사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 다른 한편으로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던 김 소장은 1993년 태국 방문 후 연변일보에 ‘타이관광이 왜 세계 으뜸인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고한 글에서 김 소장은 관광의 6대 요소(먹고, 자고, 다니고, 관광지 유람하고, 토산품 구매하고, 오락을 즐기느)를 갖고 태국의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잘 풀어 설명했다. 이것을 계기로 김 소장은 연변일보에 고정적으로 글을 투고하게 되었다. 원고료는 한 편당 15위안(약 2,645원)을 받았다.

관광업을 하며 관광과 관련된 글을 써서 신문에 게재하니 괜찮은 가외수입이

들어왔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니 이 일에도 싫증이 나기 시작했다. 관광업을 하면 먹고 놀기는 좋았지만, 겨울에는 관광 비수기라 할 일이 없으니 매일 술만 마시고 도박만 하는 등 사람이 타락하기에 십상이었다. “나중에 딸이 아버지 젊었을 때 뭐 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걱정되었다. 또한 여행업이 겉보기는 괜찮았는데 한국 측 동업자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보내주지 않아 한참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래서 여행업도 그만두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1999년부터 한국을 오가며 개인교사, 통역 등을 하며 좋은 책들을 많이 접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공부하는 학위를 따는 정식 공부가 아니라 ‘자기 절로’ 2천여 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다.

김 소장은 이렇게 스스로 지식을 쌓고 많은 분야를 섭렵하면서 2006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연변일보에 처음 자신의 글을 게재한 지 13년 만인 2006년부터 ‘연변여성’이란 잡지에 글을 실었다. ‘연변여성’은 여성 대중을 위한 일반 교양잡지로 당시 연변에서 10만 부 이상 발행하는 인기 있는 잡지였다. 이 잡지에 7차례에 걸쳐 조선족이 당면한 문제들을 시리즈로 게재하여 많은 조선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에 글을 써서 신문사나 사설학원에 근무할 생각을 하던 중, 2006년 3월에 중국동포타운신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의 편집인이 되기까지]

이제 막 성장해가는 가리봉동의 중국동포타운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해 취재하고 글을 써서 알리는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기자 일은 글쓰기를 희망했던 김 소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직장이고 기회였다. 김 소장은 정열적으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시기였다. 김 소장이 중국동포타운신문의 편집국장까지 오른 2012년은 김 소장에게 잊을 수 없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수익사업으로 주로 조선족들을 고객층으로 한 여행사와 취

업 준비학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3월 여행 가이드에 관한 자격증 발급 시행 공고가 났다. 기회가 왔다. 시행 공고와 함께 김 소장은 발 빠르게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여행 가이드 자격증 취득 관련 기사를 최초로 중국동포타운신문에 게재하였다. 이어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설명회에는 6백여 명의 중국동포들이 참석하여 4~5차례에 나누어 설명회를 해야 했다. 그 가운데 180명이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중국동포타운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였다.

또한 여행 가이드와 같은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따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공고가 나자, 발표가 났던 금요일 날 밤새워 신문을 찍어 그다음 날인 토요일자로 신문을 발행하고 그다음 날인 일요일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역시 8백여 명이 참석하고 5백여 명이 학원에 접수했다. 이렇게 하여 김 소장은 신문사가 운영하는 학원 비즈니스의 규모를 크게 키우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여행 가이드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신문기사 작성과 게재 및 설명회 등을 김 소장이 주관하고 직접 설명자로 나서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 수백 명의 학원 강습생이 등록하자 여기저기서 김 소장을 자기 학원의 강사로 모시려는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500만 원의 월급을 제안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명회는 조선족들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에 잘 맞추어, 그들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신뢰를 주면서 마음을 끌어당기는 설명회가 되어야 함을 김 소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개최하는 설명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학원 등록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으로 유혹적인 제안들에 대한 김 소장의 대답은 “돈 보고는 안 움직이지요.”라는 단호한 한 마디였다. 김 소장은 자신이 연변에서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도 해봐서 비즈니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지만, 동포 언론에 종사하고 있다는 매력과 장점, 그리고 사명감을 저버릴 수 없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사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김 소장은 다 알고 있다. 신문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김 소장=중국동포타운

신문'의 공식이 중국동포사회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부심을 김 소장은 스스로 느끼며 그에 따른 사명감과 책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김 소장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업'에 있었음을 김 소장은 뱃속 깊이 느꼈다.

2003년 8월에 김 사장에 의해 창간된 중국동포타운신문은 2011년 경영난에 부딪혀 그 해 6월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됐다. 최초 설립자였던 김 사장과 2006년부터 함께 일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설립자인 김 사장이 2011년에 자기가 만든 신문사를 떠나는 것을 직접 본 김 소장은 “아직 월급은 잘 나오지만, 중국동포사회와 관련된 일 가운데 안정이란 없다. 잘 되다가도 금방 식을 수 있다.”라는 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 소장은 신문사 편집인으로서 한눈을 팔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학원, 여행사업무를 보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강연 등을 다니며 회사 수익 창출은 물론 자신의 개인 소득 증대까지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사회 성격변화의 분수령]

김 소장은 2007년 3월 4일 시행된 방문취업제를 기준으로 중국동포사회의 성격을 둘로 나누었다. 방문취업제 시행 이전의 중국동포사회는 불법 사회를 의미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9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들은 모두 불법체류 상태였다. 한국의 이상한(?) 법령이 대량의 중국동포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불법체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인과의 결혼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장결혼이 판을 치고 브로커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중국동포들의 가정은 깨지고, 경제는 파탄 나고 말았다. 중국동포들에게 한 번만 브로커 수수료를 지급하면, 나중에 비자 연장과 국적취득 등이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하고는, 막상 한국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했고 심지어 여성들은 세 번을 함께 자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이 붙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되어 추방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소장은 “한국인들과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인정을 받은 중국동포 여성 가운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여성들이 많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동포타운신문에 20~30편의 시리즈물로 연재하기도 했다. 2007년 이전의 가리봉동은 매일 조선족들끼리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폭행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범지역이었다.”고 김 소장은 당시를 회상하였다.

하지만 2007년 방문취업제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고 가족들 간의 자유왕래가 시행되면서 가리봉동 조선족 사회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2007년 이전에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빚을 지고 여권 위조, 위장결혼 등으로 왔기 때문에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2007년 이후로는 한국에 오기 위해 빚을 질 필요가 없어져서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겨 주말에는 가족과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도 되고 있다. 요즘은 조선족들도 일주일에 4~5일 정도 일하고, 2~3일은 쉬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쉬는 날이 없으면 일을 안 할 정도라고 한다. 이전에는 과일 하나도 중국 돈으로 환산해가면서 비싼지 싼지를 가늠해가면서 사서 먹었는데 이제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제 조선족들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 이전에는 10가구 중 7~8가구는 경제적인 문제, 체류 신분 유지 문제 등으로 가정이 다 깨졌다. 혼자 와 있으니 외로워서 따로 살림 차리거나, 조선족 여성 중 일부는 식당 취업했다가 식당 주인들한테 당하면서도 중국의 이웃들에게 진 빚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요즘 중국동포타운의 관심사는 체류에서 정착으로 바뀌었다. 약간의 제한사항이 있지만, H 비자와 F 비자의 실시로 이제 한국에서 중국동포들도 왕래하며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2006년경에는 구로구에 중국동포를 위

한 상담기관이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4개 기관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구로구 다문화 관련 기관이 44개나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경제, 법률,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관들은 중국동포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가리봉동 재개발 계획은 취소되었고, 이제는 가리봉동에 새 옷을 입히려는 도시재생 계획을 추진할 계획인데, 자금이 문제라고 한다. 구로구에서는 중국동포를 위한 센터를 만들려고 구에서 50억을 마련하고 50억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가리봉동은 중국동포사회 집거지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새로운 동포들은 대부분 대림동에 정착하여, 대림동에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반면, 가리봉동은 노인층들이 주가 되어 상대적으로 가리봉동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한다. 김 소장은 “조선족들이 조선족 돈을 버는 것은 문제다. 조선족타운이 발전하려면 주류사회인 한국 사람들의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중국동포타운의 경제발전 전략을 이야기한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동포사회 가운데 재일조선족사회는 80년대 초부터 유학생으로 시작하여, 30년 만에 자리를 잡았는데, 재한중국동포사회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한 세대는 더 지나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국에 오는 중국동포 유학생들도 대개는 중국에서 2·3류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몸으로 때우는 비정규직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동포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중국동포사회에서는 중국에서 베이징대학이나 칭화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하려 가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정도 학벌이면 당연히 중국에서 직장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족 유학생들에게는 2008년부터 F4 비자가 발급되어 학업 후에도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중국동포사회를 이끌만한 인재 또는 엘리트층이 없다고 김 소장은 진단했다. 이는 중국동포사회 내의 변혁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림을 의미한다고 김 소장은 해석하고 있다. 김 소장은 “옛날 중

국의 증자가 사회변혁을 위해서는 보통 3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대적 차이는 있어도 중국동포사회도 변혁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무르익어야 한다.”며, “앞으로 20~30년은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흔히들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을 두고, 한국 내 필리핀인들이 단합이 잘 돼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중국동포 70만 명이 있어도 단합이 되지 않아 국회의원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고 김 소장은 반문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다문화 예산이 2,800억 원이나 되므로 이러한 예산을 대변하기 위한 대표자가 필요하여 집권당의 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자스민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조선족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선거투표해서 중국동포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20~30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나오면 뭐 할 건데? 지금 서울시에 조선족 명예 부시장이 있어도 큰 변화가 없는데... 직만 가지고 있지 역할이 없다.”고 비판한다. 국내 조선족 사회의 변화는 국회의원 한두 명으로 힘들다고 진단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족들의 의식수준, 한국 사회에 대한 의식변화, 문화 적응 등이 더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김 소장은 서울시 다문화과에서 프로젝트 예산을 따서 여러 곳을 다니며 조선족들에 관한 강연을 하고 다닌다. 강의 제목은 “조선족은 누구인가?”이다. 이 제목과 관련하여 서울시 다문화과에서는 왜 조선족이라고 하나, 중국동포로 고치라고 요청했지만 김 소장은 조선족에 대한 호칭을 중국동포라고 고치면 조선족의 역사와 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에 못 고치겠다고 하고 그대로 강연을 하러 다닌다. 김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동포가 맞지만, 우리 조선족들은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소장은 한국 관공서에서도 조선족에 대해 꺼리지 말고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조선족들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에서는 다 자기 민족을 밝힌다. 조선족은 중국정부의 정치적 명칭이 아니라 법적 명칭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 가운데 조선족만 유일하게 법적 명칭이 있다.”라고 조선족이란 명칭의 유일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런 법적 명칭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조선인이었다는 데서 온 것이다. 만주에서 조선인이 개간한 땅이 40만 평방킬로미터였다 우리 한반도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 때 조선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회유하여 공민권을 주고 토지사용권을 주겠다고 하여 항일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조선인들은 중국에서 공민권과 토지를 얻기 위해 항일운동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조선족 명칭의 유래를 설명했다. 김 소장은 “공산당은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하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호구를 정리하여 조선인들에게 공민권을 주었고, 토지 사용권도 주고 조선인을 위한 학교도 세워주었으며, ‘조선족’이란 호칭도 부여했다. 이처럼 우리 조선족은 우리들의 호칭인 ‘조선족’을 위해 피와 땀의 대가를 지급하고 당당히 얻은 호칭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며 조선족 호칭에 대해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가리봉동은 ‘중국동포타운’으로 명명되어야]

가리봉동에 대한 호칭 문제와 관련해서 김 소장은 ‘중국동포타운’이란 호칭을 선호하고 있다. 이미 가리봉동은 일반인들에게 ‘중국동포타운’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 내 조선족들의 역사적인 맥을 잇기 위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림동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대림동은 주민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가리봉동과 대림동의 차이를 두었다.

김 소장은 용정시 인근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일송정이나 윤동주와 같은 용정 인근에 산재해있는 한민족 관련 역사 유적지와 역사인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랐다고 한다. 나중에 여행을 운영하고 한국 방문객들의 관광안내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아무리 가까이 살았어도 배우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

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기 나뉘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조선족과 한국인 간의 갈등도 이렇게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김 소장이 ‘조선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니는 이유도 이같이 서로 알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하여,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유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아무리 대림동의 조선족 사회가 성장하고 있어도 조선족의 역사와 맥이 흐르는 가리봉동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며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 입구에 있는 중국동포타운신문사를 대림동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중국동포타운신문은 가리봉동에 있어야만 비로소 ‘중국동포타운신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언론인으로서 한국생활을 시작한 김 소장은 직업이 직업인만큼 그렇게 사회적인 차별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은 집단을 생각해야 하니까 조선족이라는 집단적 차원에서는 차별이 많음을 느낀다고 한다. 일례로 조선족이 한국인을 살해했다고 하면 바로 신문사 전화에 불이 나지만 한국인이 조선족을 때려죽였다고 하면 전화 한 통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재한조선족 사회에서 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소장은 먼저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3~4년 사이에 조선족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니까 향우회, 동창회, 직능단체, 봉사단체 등 여러 종류의 단체를 만들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제 오히려 너무 많아 유명무실한 단체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유명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재한조선족 또는 조선족 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나 단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나름대로 전 조선족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이 생겼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선족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되려면 돈과 학식이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직 조선족 사회에 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소장이 한국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는 이제 단일 혈통이니 단일 민족이니

하는 의식을 버리고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는 버릇을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민족이 달라도 말투가 다르다고 따돌리는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민족인데도 말투가 다르다고 따돌리는데 이런 것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김 소장은 재한조선족 사회의 전망에 대해 “앞으로 70만 명의 조선족 사회는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과거에는 조선족들이 소수자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조선족들에게 무조건 한국 사회를 따라오라고 했다. 앞으로는 상호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 우선 공무원들부터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선족에 대한 한국 언론들 보도의 불공정성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국 언론들은 중국동포 관련 기사들에 대해 선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조선족과 연관된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엽기적, 계획적이란 말을 사용해서 보도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남녀관계에서 핏김에 살인하고 두려운 마음에 엉겁결에 시신을 감추려다 보니 토막 내는 거지, 처음부터 계획해서 토막을 낸 거라거나, 고의적으로 토막 낸 거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남녀 연인 간에 그런 엽기적인 또는 계획적인 살인을 하겠느냐고 같은 언론인으로서 한국 언론의 보도 자세를 비판했다. 그리고 김 소장은 “자꾸 그렇게 부풀려 보도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김 소장은 말한다. 올해 2015년에 조선족 사회에서 새롭게 발족한 ‘중국동포 미디어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데 힘을 발휘하여 고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인과 조선족 서로 간에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 그리고 이해가 앞으로 재한조선족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결론 맺었다.

E) 이중언어중국동포교사 다문화 교육의 선도자 배○○

[훈춘의 ‘찐레꽃’ 아버지]

배 선생의 할아버지는 경주 출신이다. 일제 강점기 때 중국 훈춘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꾸리고 배 선생의 아버지를 낳았다. 배 선생은 할아버지의 고향인 경주를 2004년 한국에 와서 2012년 다문화 교사가 되기 위해 서울교대에서 공부하던 중 수학여행으로 처음 방문했었다.

배 선생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길림성 훈춘시 10여 리 정도 떨어진 농촌마을에서 출생하여 인근의 자흥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 배 선생의 고향은 조선족과 한족이 반반 정도 되는 농촌마을이었다. 의사였던 배 선생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한국을 왕래하면서 많은 의학 서적을 구매해 갖고, 한국어와 중국어는 물론 일본어와 러시아어도 유창한 인텔리 중의 인텔리였다. 배 선생의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약간의 취흥이 오르면 한국 노래를 자주 부르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흥얼거리던 한국 노래들을 옆에서 들었던 배 선생도 많은 한국 노래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것이 ‘찐레꽃’이란 노래라고 한다. 배 선생은 찐레꽃의 노랫말을 자신이 직접 붓글씨로 써서 액자에 넣어 놓고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린다고 한다. 아버지 덕분에 배 선생은 일찍부터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를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라고 한 말이다. 어머니는 돼지를 길러 팔아서 재봉틀을 사고 싶어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돼지를 판 돈으로 아버지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던 책을 한 보따리 사 왔다. 배우고 싶은 것은 꼭 배우고 마는 배 선생도 이러한 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듯하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사는 모습도 함께 배운 배 선생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둘, 언니가 셋이 있었다. 일찍 작고한 둘째 오빠를 제외하고 5남매가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선 교사의 길]

배 선생이 처음 고향을 떠난 것은 16세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훈춘시내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지가 않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식분자’가 되었다. 배 선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식분자’가 되어 배 선생의 모교였던 자흥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19세 때부터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이듬해 친구들 8명이 함께 중등 전문학교 교사 양성 학교 입학시험을 치러 혼자만 합격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중학교 조선 어문 교사가 되었고, 다시 연변대학에서 조선 문학을 전공하였다. 교사가 먼저 되고 교사 자격을 위해 공부한 배 선생은 가르치면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됐고 꿈에서도 시험을 보는 꿈을 꿀 정도 열심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남구로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교대에서 다문화를 전공하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배 선생의 지난 30년 인생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주경야독’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배 선생이 중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로 구성된 ‘꽃봉오리 예술단’을 만들어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여러 학교를 자주 방문해서 공연했다. 교장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은 한국의 교육 환경은 중국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상상이 되었다.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이 돈을 벌러 한국으로 가던 시기라 배 선생도 한국에 한번 가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여기에는 교사로서 자기 계발을 더 해보려는 욕심도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즐겨 부르시던 한국 노래 속의 한국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래서 2004년 7월 결혼을 통해 한국행에 올랐다.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은 서울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경만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여기저기 지원한 결과 중대부속초등학교의 중국어 강사로 취직됐다. 한국에서 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이

었다. 한국에서의 교사는 중국에서의 교사보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다고 배 선생은 말한다. 그래서 중대부속초등학교에 취직되기 전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교사를 20년 가까이하다가 한국에 왔다고 하면 다들 왜 좋은 교사 자리를 버리고 한국에 왔느냐며 의아스러운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조선족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조선족들이 중국에서도 막노동하던 사람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 선생이 교사를 하다가 왔다고 하면 다들 신기해하는 눈치였다.

중대부속초등학교에서 처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는 많은 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중국은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남녀공학이었다. 단지 조선족이 많은 학교는 조선족과 한족을 반반으로 나누어, 복도 중간을 경계로 한쪽은 조선족반, 다른 한쪽은 한족반으로 나누어 한 건물 내에서 공부했다. 그래도 노는 시간에는 조선족 학생들과 한족 학생들이 같이 섞여 놀았다. 하지만 조선족 학생들은 주로 조선족 친구들끼리 노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언어와 민족이 달라 반을 구별하기는 해도 남녀가 함께 공부했기에, 남자와 여자고등학교가 따로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는 배 선생에게 참 이상한 제도로 보였다. 중국 학교들은 교사들도 조선족과 한족 반반으로 나뉘어 근무하지만 회의나 보고서 작성은 다 중국어로 한다고 한다.

[놀라움의 연속인 한국학교에서의 교사 생활]

2005년부터는 방과 후에 중국어 강사로도 근무했다. 방과 후 중국어 학교는 학생들이 별도의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는 것이어서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래서 하루는 학생들이 배 선생에게 달려와 “맛있는 거 사 주세요.” 하길래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에게 뭘 사달라고 조르는 것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접은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하는 것이지 학생이 선

쌤님께 먹을 것을 사 달라니... 다른 한국 교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냐고 묻자, 한국 선생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은 애들이 돈을 내고 오니까 선생님들이 가끔 맛있는 것을 사주어서 그렇다는 거였다.

또한 배 선생이 보기에 한국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에 발표를 서슴없이 하고, ‘저요, 저요.’ 하면서 자기를 뽑아 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아이들이 천방지축,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런 학생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이 자유스럽게 발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민주적인 모습처럼 보이고 활발하게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활기차게 보여 좋았다고 한다.

한국이 점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2012년부터는 자격 있는 이중 언어 강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배 선생은 서울교대에서 시행하는 이중 언어 강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교육을 마친 후, 2013년부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남구로 초등학교 이중 언어 강사, 지금은 다문화 언어 강사라고 하는 교사로 3년째 근무 중이다.

중국에서 20년, 한국에서 10년, 배 선생이 교사로 생활해온 햇수가 이제 30년을 넘었다. 이제는 한국학교도 낫설지 않고 학생 가르치는 일이 자신에게 맞고 학생들을 가르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 남구로 초등학교 정규수업 중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 7백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이해’와 ‘다문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무지개 교실이라고 하여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를 하고 있다. 남구로 초교에는 80여 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중국동포 자녀다. 대부분의 중국동포 자녀는 중국에서 학업 도중에 입국한 중도입국 학생들이지만 몽골, 러시아, 필리핀 학생들보다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있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배 선생에게 방과 후에 특별히 한국어를 추가로 배우는 학생은 모두 10여 명이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배 선생이 해왔던 일들이 밀거름대서 상당히 보람이 있고 배운 것을 발휘하고 빛을 발하는 느낌이라 특별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활동가 배 선생]

직업으로서의 교사 이외에 배 선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 활동을 하고 있다. 배 선생의 글쓰기는 연변 문학가 협회 활동에 이어 한국에서도 중국동포 문인들의 모임에 나가 시, 수필 등을 쓰고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민족 여성들이 모여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조각보’라는 모임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각보 모임은 2012년에 설립되어 200여 명의 회원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각자의 취미에 따라 여행, 역사 문화 체험, 등창 모임, 식사 등을 함께 하는데 중국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배 선생은 중국동포 교사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중도입국 자녀들을 매주 토요일 모아 한국어와 중국어 교육,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는 어울림 주말 학교에 나가 교사로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어울림 주말 학교는 대림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구로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 열린다. 현재는 6명의 선생이 봉사하고 있다. 서예도 배워 보통 이상의 서예 실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동포 미디어모니터링단’의 단원이 되어 중국동포와 관련된 부당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일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다.

배 선생은 한국에 와서도 계속 교사로만 재직해서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적도 없다. 교사로서 한국어와 중국어 문제가 없으니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대접을 잘 해주고 좋게 봐줘서 무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또한 평소 생활이 집과 학교만을 오가는 생활이라 중국동포들의 자세한 생활도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주위 중국동포들의 80% 정도는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자신도 교사로서 이러한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느껴 미디어모니터링단에 참가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조선족’과 ‘중국동포’라는 호칭에 대해 배 선생은 다른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는 ‘조선족’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우리 조선족의 정체성은 뭔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배 선생에

게는 두 명칭 모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별 차이를 못 느끼며 다 좋다고 생각했다. 단지 명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다.

배 선생의 고향인 훈춘시는 비교적 작은 도시여서 3~4시간이면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한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훈춘시의 골목골목이 생각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내려다보이는 방천도 생각나고 각지에 세워진 열사비 등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온 처음 3~4년 동안은 1년에 두 번씩 고향을 방문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쪽에 익숙해져서 내가 그쪽에서 살다 왔나 싶을 정도로 아득하게만 여겨진다고 한다. 고향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가 8년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말한다]

배 선생이 중국동포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동포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취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한다. 배 선생이 본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직장을 지나치게 고르느라 백수 아닌 백수가 많다고 한다. 배 선생의 좌우명인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온다.’는 말처럼 자신이 잘하는 쪽을 선택해서 열심히 준비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남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면 한국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반 전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아이들이 자기가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 전체 사진을 찍으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다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도 다문화에 대해 열등감을 가진 것을 볼 때, 하루빨리 한국 사회에

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 이러한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교실에 오면 유난히 시끄럽게 떠든다고 한다. 처음에는 공부 분위기를 흐트러뜨릴까 봐 무조건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도 아주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다문화 교실에 오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만나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긴장감이 풀어져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소란을 떠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배 선생은 다문화 교실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말을 어느 정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데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고 한다.

배 선생은 한국 학생들의 정규반에 들어가서는 ‘다문화=약자’라는 등식을 깨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그 학생들로부터 한국 학생들이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하여 다문화는 서로가 조금 다른 것일 뿐 어느 한 쪽이 나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

F) 가리봉동 안주인 허○○

[흑룡강성 밀산 경상도 마을이 내 고향]

허 선생의 고향은 흑룡강성 밀산 현의 25개 조선족촌이 밀집된 농촌 지역이다. 밀산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지기 훨씬 전인,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 하자 바로 독립운동의 중심지역이 되어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특히 한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의미로 지어진 흑룡강성 밀산 현의 한흥촌은 최초의 조선족 마을로서 홍범도 장군과 서일 장군 등과 같은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국 독립의 강한 기운이 서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허 선생은 밀산 현 중에서도 북풍 촌이라고 러시아 쪽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고향이다. 그리고 밀산 조선족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진학한 후, 초등학교 교원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유치원도 2년 가까이 운영을 해보다가 1991년 한국으로 왔다. 당시 허 선생의 고향에는 특히 경상북도 출신의 조선족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어서 1986년부터 한국 친척 방문이 시작되었고, 1990년 한·중수교 후에는 많은 사람이 조국의 고향을 방문하여 친인척을 만났다. 경북 봉화가 할아버지의 고향인 허 선생도 이때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경제적인 이유로 용기를 내어 한국을 방문하여 정착을 시도하였다.

[함바식당 일어났지만 돈 부치는 재미가 있었던 시절]

1991년 처음 한국에 와서, 당시에는 별판이었던 일산 마두역 근처에서 함바식당을 했다.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당시 한국 돈 65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1만 위안이 되어 월급을 몇 달 치를 모아 중국에 있던 가족들에게 보내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되어 중국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향에 돈을 보내는 재미로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양파도 다듬고 하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사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던 하루하루였다. 허 선생이 한국에 처음 온 1991년 무렵에는 한국 내 중국동포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고 중공에서 왔다고 하여 모두 신기해하며 자기를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잘 대접해주어 살기가 아주

좋았다고 한다. 한국인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도 많이 느꼈다고 한다. 그 당시 많은 중국동포가 서울역에서 인삼 또는 웅담, 녹용 등을 비롯한 중국제 한약 재료를 들여와 보따리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중국동포들이 늘어나고 밀입국 또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일어나게 되어 한국인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여 심한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허 선생은 1990년대 중반에는 벌써 한국 사람들이 3D업종 취업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동포들이 이 3D업종에 취업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한국 사회는 훨씬 더 큰 위기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지만, 한국 경제에 중요한, 한국의 기반 산업이 되는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허 선생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업종에서 일하기 싫어하면서 중국동포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배가 아픈지, 중국동포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초 당시 중국동포들은 주로 러시아 쪽으로 가서 연예인 신분으로 위장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에, 10일간의 비자 기간이 끝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허 선생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처음에는 친구들과 일산의 함바식당에서 3년 정도 일을 한 후에 금호동 달동네로 이사하여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며 식당 일을 하다가 한 여행사 사장님을 알게 되어 여행업무와 서류 대행 업무 등을 했다. 그때는 한국의 젊은이들도 중국어를 배우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도 많이 필요할 때여서 허 선생도 보람을 갖고 일을 했다. 그 후 2002년 말에 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자리를 옮겨 중국동포 파출부 파견 담당을 하여 많은 중국동포에게 일자리 상담을 해주느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피곤했지만 그래도 같은 중국동포

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던 시기였다. 직업소개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중국동포들이 H-2 비자로 합법적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기면서 직업소개소에서 패 돈을 벌었다. 일할 중국동포들은 쏘아져 들어오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그렇게 한창 일하던 무렵인 2007년에 현재의 남편인 동포세계신문 김 발행인을 만났다. 서로 동갑인 데다가 서로 간에 진실함이 통해 김 선생의 제안으로 허 선생도 함께 김 선생의 신문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허 선생의 성격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남의 일도 마치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는 성격이어서, 신문사를 위해, 아니 김 선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주위에서 서로 사귀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말처럼 2011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허 선생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한국으로 이주해와 살고 있는데, 다른 친척들도 한국으로 많이 이주하였고 베이징이나 상하이로도 많이 이주해 나가서 이제 고향에는 친척이 아무도 없다. 허 선생의 가정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오면서 가족 해체와 고향 이탈을 겪은 중국동포들의 전형적인 가정이다.

허 선생은 “조선족들은 중국 땅에서 살면서 성공한 강한 민족이다.”고 중국동포를 소개하면서, “물론 한국 사람들도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겠지만, 조선족들도 나름대로 배운 것이 많다. 해외에서 해외동포들의 자체 교육기관을 가진 것은 조선족밖에 없다. 조선족들은 중국 각지에 수백 개의 조선족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했으며, 연변대학이라는 명문 조선족 대학까지 설립했다. 그만큼 민족적, 사회적 자긍심이 높다.”고 중국동포들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자기들에 못지않은 조선족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을 길게 설명하려고만 한다. 마치 조선족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라고 중국동포를 무시하

는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 섭섭함을 드러낸다.

허 선생은 “어느 면에서 조선족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고 상황 탓만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편협한 직업관에 대해 비평한다. 또한 “조선족들은 열심히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쓸 때는 크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인색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 비평하면서도 허 선생은 “70만 조선족 동포들에게 한국 정부가 잘하는 편이다. 이제는 조선족들도 한국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재한 조선족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동포 여성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열심]

다른 한편으로 허 선생은 “이제 재한 조선족 사회에 조선족 단체가 많지만, 조선족을 위한 단체는 없다.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한 단체들뿐이다. 조선족 단체장들이 겉멋만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조선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또한, 중국동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가 많지만, 광고지일 뿐이다. 진정으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언론매체는 드물다.”고 중국동포 자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가리봉동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허 선생은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의 생기기 때부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동포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가리봉동 주민자치협회, 예산위원회, 생활안정협의회 등의 지역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허 선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조선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다. “그냥 한국말 잘하네...”하는 정도로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말을 잘하는 것을 신기해할 뿐이다. 가리봉동은 한국인, 조선족, 한족들로 크게 구분되는데, 2000년대에는 한국인과 조선족이 서로 반반씩이었는데,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운데 반은 조선족이고 반은 한족이 되었다고 허 선생은 가리봉동의 변화 양상을 말한다.

가리봉동은 공단지역으로 일찍부터 별집(일명 쪽방)들이 발달해 있어 중국동포들

이 쉽게 이주해 들어올 수 있었다. 중국동포들이 가리봉동에 처음 왔을 때는 보증금 없이 10만 원 정도에 월세를 얻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다가 돈을 벌면 지하철 근처로 나가고 다시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대림동으로 이전했다. 또한 대림동에서 2~3년 살다가 돈을 조금 더 모으면 건대 근처로 이사하는데, 그 이유는 건대 근처가 지리적으로 강남에 가서 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리봉동의 중국동포타운이 사라질지도...]

허 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가리봉동은 중국동포들의 거주가 최초로 이루어져 집단 거주지가 되었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라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남구로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가리봉동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와 한족들의 많은 가게가 남구로 시장과 구로시장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몇 년 후면 가리봉동의 중국동포타운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가리봉동을 중국동포타운이라고 하기보다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허 선생은 “중국동포타운이란 말은 남편이 ‘중국동포타운신문’을 발간하고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에 대한 많은 기사를 게재하여 한국 사회에 알리면서 시작된 명칭이었지만, 이제 70만 명이나 되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모에 맞게 중국동포들의 거주지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가리봉동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이곳을 다시 중국동포타운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허 선생은 “가리봉동의 중국동포타운은 이대로 가면 3~4년 후면 없어질 것 같아요. 아주 썰렁해요. 구로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쪽은 남구로, 구로, 대림역 등이 있어 교통도 좋고요... 이전 중국동포들도 별집에서 안 살려고 해요. 가족단위로 오고 애들도 있으니까 방 2칸, 3칸짜리로 가려고 해요. 대림동과 구로동에 있는 집이 1억 5천~2억 정도 되면 중국동포들이 바로 현찰로 구매해버려요.”라고 하며 중국동포들의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가리봉-대림동 중국동포타운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동포 사회의 변화 원인을 “90년대부터 와서 고생한 중국동포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온 중국동포 30대들은 버젓한 직장에서 돈 벌어서 부모님들에게 집도 사드리고…. 이제 벌집에서 살 사람 없어요. 3~4년 지나면 저런 벌집은 없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다 대림동에서 만나요. 가리봉동이 유명하다는 것은 말뿐이에요.”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3년에 강산이 한 번씩 변해요.”라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중국동포타운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과 중국 간 교류와 협력의 매개 역할]

평소 활발한 성격에 직업소개소, 신문사 등 여러 가지 사회 관련 일을 하다 보니 까 점차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일에도 관여하게 되어 최근에는 2014년에 ‘한중도시 우호 교류협회’를 만들어 중국의 ‘대외우호협회’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도시 간, 정부 간, 민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선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기 도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과 한국의 지방 정부들을 연결해 자매결연도 맺게 해주고 상호 투자와 문화적인 교류 등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느 중국 단체와 손을 잡고 중국 기업인과 중국의 각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감속성 예술단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176개의 한국과 중국의 자매 도시들이 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아직은 많은 교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100명 정도의 중국 관계자들이 허 선생을 통해 내한하여 한국 측 관계자들과 교류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다음 달부터도 금천구에서 ‘한중액세서리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 박람회도 허 선생이 주선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단체 활동의 비용은 중국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흑룡강성이 고향인 허 선생은 흑룡강 출신 조선족 모임 주선에도 열심이다. 뜻있는 사람들끼리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여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모금

하여 밀산의 모교를 통해 불우한 조선족 학생들 또는 경제생활이 어려운 조선족 학부모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아래쪽으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시골 처갓집’이란 식당을 개업했는데, 손님은 주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한다. 조선족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의 우의와 의리가 돈독하여 식사하기 위해 멀리서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한다고 한다. 요즘은 중국동포들도 가족 단위의 생활이 위주여서, 식당과 같은 외식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찾아주어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식당이지만 그런대로 수입은 괜찮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식사와 술을 시켜 마시고는 술값을 안 내려고 주정을 부리고 해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손님을 안 받으려고 할 정도라고 한다. 허 선생은 고향의 다정다감한 누님 또는 아주머니처럼 ‘시골 처갓집’이란 정겨운 간판을 걸고 주로 장국과 두부 요리를 위주로 하여 흑룡강성 출신 중국동포들에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 중이다.

G) 중국동포타운의 산증인 김○○

[‘동포세계신문’의 전신 ‘중국동포타운신문’을 설립하면서]

가리봉동 남구로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뒤로 돌아 100미터쯤 올라가면 약간 언덕진 곳에 있는 건물 2층에 동포세계신문이 자리하고 있다. 동포세계신문은 2011년에 창간되었지만, 지령은 중국동포 단지에서 발행되는 어느 신문보다 오래되었다. 그 이유는 “동포세계신문은 2003년에 중국동포타운 최초로 발행된 중국동포타운신문의 맥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포세계신문의 사장 김 사장은 말한다.

1988년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김 사장은 전공이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아 1년 후인 1989년 울산대를 자퇴하고, 1990학번 중앙대 영문학과로 재입학했다. 비로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은 김 사장은 학교와 군 복무를 마친 후 1997년부터 1999년 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신문사 기자의 꿈을 키우다가, 자신이 스스로 1999년에 국제관계와 남북문제를 다룬 시사 잡지를 창간했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재한 중국동포에 특별히 관심을 두게 된 김 사장은 2000년 서울 조선족 교회(담임목사 서경석)로부터 재한 중국동포를 위한 신문 제작을 제안받았다. 이러한 제의는 1998년부터 알고 지내던 서울 조선족 교회의 최 목사로부터 동북아신문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의였다. 당시 김 사장은 중국의 조선족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사는 연변이란 마을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생소했지만, 무엇에 홀렸는지 흔쾌히 최 목사의 제의에 응낙했다. 그리고 바로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신문을 2000년에 창간준비용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기 시작했다. 2001년도부터는 신문명을 ‘동북아신문’으로 정하고, 신문사를 언론기관으로 등록한 후, 신문도 본격적으로 주간지로 발행했다. 서경석 목사를 사장으로 하고 최 목사가 편집국장을 맡고 김 사장은 취재기자를 맡아 가리봉동 중국동포사회를 동분서주하며 취재했다.

하지만 동북아신문 발행 목적이 서 목사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선교에 있었던 반면, 최 목사는 중국동포들에게 뉴스 전달과 중국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들에 대한 보도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 발행 방향에서 사장과 편집인의 견해차이와 갈등이 컸다. 결국, 2003년에 최 목사는 신문발행에서 손을 떼고, 교회의 전도사가 편집국장을 맡음으로써 동북아신문은 서 목사의 의도대로 선교 중심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이후 ‘동북아신문’은 2004년 4월에 조선족인 이 씨가 새롭게 편집인으로 초빙되고 후에 신문사의 대표가 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서 목사와 최 목사 간의 또 다른 갈등은 서 목사가 편집인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 목사는 편집인 자리를 김 사장에게 맡기려고 한 것이었다. 서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생각과 신앙을 알리는 홍보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북아신문을 주로 교회 소식을 홍보하고 중국동포들을 전도하는 미디어로 인식했다. 또한 2007년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수도 다단계 사건’에 서 목사가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곤욕을 치름으로써, 서 목사는 2008년에 신문 발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

이러는 와중에 김 사장도 최 목사와 함께 2003년 3월까지만 조선족 교회에서 ‘동북아신문’ 발행에 관여하고, 최 목사와 함께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2003년 8월까지 약 5개월간 김 사장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타운신문을 창간하였다. 이렇게 김 사장이 다시 중국동포들을 위한 신문을 창간하게 된 데에는 최 목사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김 사장이 2003년 동북아신문을 함께 그만두면서 최 목사는 김 사장에게 “제대로 된 신문사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그래서 김 사장은 2003년 8월 23일 중국동포타운신문을 창간했다. 그리고 최 목사는 조선족 교회를 나와 가리봉동에서 서울 중국인 교회를 설립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한족들을 위한 목회를 했다. 재한 중국동포들을 위한 언론 매체가 없었던 당시에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중국동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지였다. 특히 중국동포타운신문은 당시 중국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한국 내 체류 관련 비자 문제 등과 관련한 기사를 상세히 게재하여 중국동포들의 많은 궁금증을 달래주었다.

[쉽지 않은 중국동포 이야기]

이제 신문사 사장이 된 김 사장은 가리봉동에서 중국동포타운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2003년을 잊지 못한다. 당시의 가리봉동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김 사장은 “중국동포 이야기는 하기 쉽지 않다.”는 말부터 꺼냈다. 김 사장이 처음에 봤던 가리봉동은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이미 슬럼화되어 있었고, 낮에도 음침한 골목들로 희망이 없는 어두운 동네였다고 한다. 그러한 가리봉동에 중국동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전후로 1990년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부터였다. 조국이라고 해서 돌아왔지만,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중국동포들은 빈 동네나 다름없어 상대적으로 집세가 싸고 방 구하기가 쉬웠던 가리봉동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리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사회 안전을 위해, 법무부가 자진하여 신고하면 1년 동안 합법 체류를 인정해준다고 법령을 개정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많은 중국동포가 조국을 찾았지만 대부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하고 3D업종을 전전하며 부당한 대우에도 아무 말 못 하면서 음지에서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했다가 자진신고를 통해 1년에 불과했지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어 떳떳하게 생활하며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중국 연변 문화를 가리봉동으로 이전시키기 시작했다. 노래방과 양 꼬치집이 등장하고 식당들도 화려해지면서 흥청거렸다.

하지만 월드컵도 끝나고 법무부가 약속한 1년의 기간도 끝나자, 법무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들어가 가리봉동은 다시 암흑기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한국과 중국의 중국동포사회는 크게 요동치면서, 가족은 헤어지고, 갈라지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2007년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의 합법적인 입국이 허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동포들은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가리봉동보다는 거주환경이 더욱더 나은 인근의 대림동으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가리봉동의 변화]

2003년 12월에 가리봉동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재개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부터 인근 지역들을 함께 개발하는 거대한 도시계획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라 가리봉동 인근 지역들인 예전 구로공단 자리에는 2005년부터 새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인근에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리봉동은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알맞은 첨단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주변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가리봉동 지역 주민들도 개발에 들떠 남아져 가는 건물들을 보수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도 중국동포들은 계속 유입해 들어와 가리봉동이 제2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가리봉동으로 중국동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자 가리봉동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건물주들과 입주 상인들, 그리고 주 거주 층인 중국동포들 간의 이익이 상충하여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결국,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 가리봉동 뉴타운 계획이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개발계획의 성공 여부가 의문시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일으킨다고 하여 결국은 해제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가리봉동은 2003년 이후 중국동포들의 급증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발전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전면적인 개발계획이라는 외부적인 힘으로 발전하든가 하는 발전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린 셈이 되었다. 이제는 낙후된 거주환경에서 홀로 사는 중국동포들이 보증금 없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 얻을 수 있는 별집, 쪽방촌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가리봉동 중국동포들의 변화와 함께, 중국동포타운신문의 사장이었던 김 사장도 적지 않은 개인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본인이 발행한 중국동포타운신문사의 사장직을 운영난으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011년 중국동포타운신문사를 그만둔 김 사장은 곧이어 2011년에 다시 동포세계신문을 창간하여, 중국동포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을 이어나갔다. 어쨌든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리봉동 중국동포들의 역사와 함께해온

김 사장은 가리봉동 중국동포 사회 변화의 산증인이 되었으며, 김 사장이 발행해온 중국동포타운신문과 동포세계신문은 가리봉동 중국동포들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다.

2015년 현재 가리봉동은 도시재생의 변화 시점에 있다. 구로구에서는 가리봉동 중앙시장 뒤편으로 ‘현장소통마당’이란 것을 만들어 그동안 개발계획 때문에 낙후될 대로 낙후된 가리봉동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운동이 펼쳐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대림동으로 이주한 중국동포들과 새롭게 이주해오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가리봉동에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김 사장은 오래전부터 중국동포들에 대한 책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특이하게도 해방 후 중국으로 이주해 간 동포들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방 직후 남한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은 태극기가 달린 교실에서 애국가도 부르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다가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중국 공산당 정부가 1949년 10월 1일 설립되면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1948년에서 1949년까지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으로 혼란기를 겪다가, 1950년부터 중국 내 소수민족 정책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조선족 학교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중국 동북 3성 각 지역의 조선족 학교들은 대부분 1950년대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 조선족 학교로 전환된 중국 내 대종교의 학교들이었다.

[가리봉동은 ‘중국동포타운’으로 명명해야]

김 사장은 2005년 추석 명절 행사를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지역 활동을 하지 못하고 신문 발행에만 집중해왔다. 가리봉동 중국동포타운과 함께 해온 김 사장에게 가리봉동의 ‘중국동포타운’이란 명칭은 남다른 감회가 서려 있다. 이러한 가리봉동의 명칭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관계 기관에서 그냥 ‘차이나타운’으로 통칭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김 사장은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면 표면상으로 이해하기는 쉽다. 왜냐하면, 중국동포도 중국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라 해도

지역 주민들은 중국동포도 중국인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에게도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그냥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간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단체 활동가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동포타운은 차이나타운과 다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한다. 김 사장은 “가리봉동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조선족 문화가 혼재된 제3의 문화지대이다. 중국 각지의 중국식 요리도 있지만, 노래방 문화는 한국식, 그리고 중국동포 특유의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먹는 것은 중국식에 가깝지만, 놀이문화는 한국식에 가깝고 그사이를 중국동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가리봉동은 결국 ‘중국+동포=중국동포타운’의 공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리봉동을 중국동포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사장은 가리봉동이 중국동포타운으로 자리 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들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리봉동은 상인과 집주인과 일반 지역주민의 입장이 다 다르다. 예전에 가리봉동의 일반 지역주민들은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상 칼을 차고 다니는 중국동포들이 많아서 밤마다 거리 다니기를 무서워하기도 했다……. 문화적 특화지역으로 차이나타운은 많으니까 가리봉동은 중국동포타운(China Korea Town)으로 만들어 보자. 중국과 한국이 만나는 접점 문화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김 사장의 부인은 흑룡강성 밀산 출신의 조선족 여성이다. 김 사장은 2006년부터 신문사와 함께 여행사를 연계해서 사업했는데, 2007년에 방문 취업제 시행과 더불어 중국동포들을 위한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함께 동업했던 여행사 사장을 통해 지금의 부인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8년에 연변농업은행과 한국계 은행 자매결연식 때 다시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부인은 김 사장의 신문사 앞에 있던 직업소개소에서 근무 중이었다. 2010년에 김 사장이 신문을 발행하는 데 사업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신문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 인연으로 이들은 가까워져 2011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부인은 1990년대 초부터 내한하여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하다가 김 사장

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김 사장의 신문사, 여행사 사업 등을 도우며 광고와 행정 서류 등 많은 일을 함께하다가 2015년에 ‘시골 처갓집’이라는 식당을 따로 개업해서 흑룡강 출신 고향 사람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H) 긍정의 개척자 박○○

1. 고향에 대하여

타향살이하다 고향 생각이 문득 날 때면 가슴이 시리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부셨지만 저는 농촌이 싫었어요. 돼지도 싫어 돼지고기도 안 먹었어요. 엄마가 외지로 일가시면 돼지가 죽기를 바랬죠. 전기도 없는 곳에서 부모님은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바람 불면 엄청 무서웠지요. 8~10살 때부터 집 안 살림을 해야 했어요. 돼지 먹이를 줘야 하고... 공부하면 도시로 보내준다는 엄마 말에 열심히 해서 11살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3개월 뒤부터는 고향 생각에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눈칫밥도 먹고 하니 까 부모님도 생각나고.... 언젠가 한 번은 밤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새벽에 엄마가 보시고 깜짝 놀라 우셨어요. 어린애가 혼자서 깜깜한 밤에 찾아왔으니... 이후 저는 집에 있을 땐 밥통을 안고 살았어요. 집 밥이 참 맛있었으니까요. 하루 6기를 먹었으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리웠던 고향의 소중함 표현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흑룡강에서 기차 타고 30분, 송화강 북쪽 반지허 그곳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했던 작은 마을이에요. 가난과 핍박으로 눈물 나게 했던 내 고향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2. 학창시절

큰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까불지 못했지요. 도시로 가니까 공부를 못 따라갔어요. 큰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불러서는 몇 등 했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네가 누구 조카냐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셨죠. 무턱대고 노력하겠다고 했죠. 큰아버지는 지시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노력을 어떻게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매일 공부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도 심심해서 땅 파며 놀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첫눈이 내렸습니다.’는 문장 짓기를 하는데 해 본 적이 없어서 못 써서 망신을 당했었죠. 사촌 언니가 문장을 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아무리 천재라도 책을 읽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전 책 살 돈이 없다고 투정을 부렸더니 언니가 서점에 가서 책 12권을 샀어요. 3일 만에 다 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1등상을 받게 되었죠. 돈을 몰래 가져다 책을 산 적도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200명 중에서 전교 2등으로 중학교에 들어갔죠. 학생 우등상을 받았는데 사춘 언니가 막 울었어요. 사춘 언니도 저를 키우면서 고생이 많았나 봐요. 하지만 나는 철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잘해준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서러웠던 것만 생각나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큰덕에 가지도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이 참 많아요. 중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학교 밥이 너무 맛이 없어 몰래 양배추를 훔쳐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다가 걸려서 반성문을 50장을 썼죠. 각기 다르게 쓰라고 했는데 그때 문장력이 향상되었던 것 같아요.(웃음)

3. 직장생활

처음에 우리 집은 잘 살았어요.(초등학교 당시) 가구도 가장 먼저 사고, 화물차도 사고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길로 나간다고 해서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업을 방해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고향에서 선생님을 하면서 통신 공부를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일로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어느 날 동네에 85세 할머니가 며느리 폭행으로 입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며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무슨 힘이 났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협심이 불타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글을 써서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의 양갓뎌>이라고... (필명 성화) 저는 기자였지만 이 일이 문제가 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어른들과 의논하여 대련의 한 한국 기업(케이크 위에 장식하는 꽃을 만드는)에 들어가서 배우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알게 되고 오고 싶어졌죠. 그 후 기회가 만들어져서 사장님 동료 소개로 연수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한국생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가족 염색을 하는 데서 일했는데, 회사 차장님이 매일 와서 일을 못한다고 저한테 면박을 줘서 막 대들었어요. 저는 할 말 다하고 말이지요. “차장님은 처음부터 잘하셨냐고!” 주변에선 상사에게 대들었다고 큰일 났다며 저를 걱정하고 난리였죠. 결국 차장한테 불려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풀었습니다. 그 이후로 더 관심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도 스타가 되었죠.

거기서는 철야를 했어요. 일요일 오후에만 쉬었어요. 자본주의 국가(한국)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잠을 재우지 않으니깐요.(1994년) 그 당시에는 중국(고향)이 또 엄청 그립더라고요.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이었는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죠. 저도 멋도 모르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인이 너는 젊으니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권유해서 비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무역회사로 가서 남편을 만나 1997년에 부산에서 가리봉동으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5. 가리봉동에서

가리봉동에 와서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기획서를 손으로 써서 들고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넌 어디 가서도 살겠다면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식품 수입한 것을 받아 가리봉동에서 파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아야 200박스씩 공급해주었는데 저는 싸게 유통하기 위해 직접 전화해서 1,000박스를 주문했더니 무역회사 이사가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서 물건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다 2004년에 자진신고와 강제출국 등 때문에 가리봉동은 전쟁 같은 난리가 있었죠. 가족 서류 때문에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 인연이 되어 출입국과 친해져서 여행사를 권유받았어요. 그래서 식품점을 친구에게 넘기고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다시 출입국에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 동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여행사가 자연스럽게 흥

보가 되어 지금까지 여행업을 주된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6. 앞으로

돈 벌면 빌딩 하나를 사서 동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동포 어르신들은 동포 1세대로 다들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라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중국 농촌에서 살았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동포 2세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편히 살게 해 드리고 싶어요.

7. 청년들에게 해주고픈 말

배고픈 사대가 없어서 간절함이 없는 거 같아요. 생각이 바른 것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해요. 20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갈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기예요.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마태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늘 고민하고 꿈을 꾸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친(엄마를 보고)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독서를 하다 보니 아무 때나 아무 데나 가서 취재할 수 있고 고민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특파원 가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잠깐 일도 했었죠. 친구들에게도 저를 보고 가자라고 부르라고 했죠. (웃음) 저는 안전하면서도 할 일 할 말 다하는 성격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괴롭힘당하는 왕따 친구를 도와주려고 의자 들고 싸운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베이징에서 저보다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덕을 좀 보죠. (웃음) 청년들은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자기 세상에 빠지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술동의서

본인은 서울시가 주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가 시행하는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의 조선족 이야기를 담은 지식맵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한중국동포의 삶과 지역문화 소개를 위한 구술활동에 참여하며 녹취, 채록에 동의합니다.

2015. 11. .

동의자 : (인)

정보이용 활용 동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구센터가 기획하고 취재한 내용에 대한 개인 정보의 이용 및 활용 동의를 아래와 같이 허락합니다.

■ 이용목적

1. 가리봉 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 맵 구축 및 재한 조선족 구술 생애사 기록물 제작용
2. 서울시 주관 좋은 서울 작은 연구 프로젝트 연구 및 정책 자료의 활용
3. 도시재생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 사업의 활용

■ 제공할 내용

개인의 신원정보(이름, 생년, 출생지, 거주지, 직업, 체류자격)
생애사와 중국동포타운 지역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직접 구술한 녹취본과 사진 및 동영상
사전 오픈 되어진 개인의 정보와 작품 및 활동 등의 기타 정보 및 자료

2015. 11. .

동의자 : (인)

부록 2_오프라인 지도 팸플릿 구성안

1_가리봉동 팸플릿 구성안

가리봉동

근대화의 상징 대한민국 11만 명의 노동자가 모여
생성한 물결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10%를 소화하던
공업단지에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성장한 곳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동일을
생각하게 하는 역사적 공간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동포거리'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음식과 중국문화 재미있는 것을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대한민국 내의 또 다른 작은 중국,
배달기타고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다양한
시골의 명소 가리봉입니다.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한국교육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경기도
Gyeonggi Province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e Education Office



경기도문화유산청
Gyeonggi Province Cultural Heritage Agency



경기도관광개발청
Gyeonggi Province Tourism Development Agency



경기도체육관광청
Gyeonggi Province Sports and Leisure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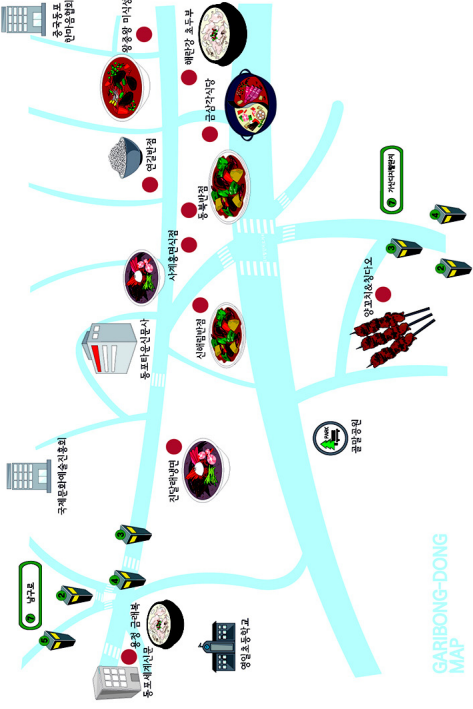
경기도보건복지청
Gyeonggi Province Health and Welfare Agency



경기도환경청
Gyeonggi Province Environment Agency



경기도소방청
Gyeonggi Province Fire and Disaster Safety Agency



GARIBONG-DONG
MAP

1. 용정 금관북/조두부 연변소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73

2. 진물래면/연변식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21-1 (02-855-0798)

3. 신해림면/해삼복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5 (02-845-8837)

4. 새 계돌면/연변식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8 (010-3302-5189)

5. 동북면/해삼복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0 (02-6224-2466)

6. 연길면/가정식 배반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3 (02-3281-9583)

7. 금상곡식당/북괴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6-10 (02-865-3288)

8. 해랑과 조두부/조두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22 (02-839-5184)

9. 왕중왕 미식당/미리상곡
서울 구로구 우마길 27 (02-869-9999)

10. 양과자&다오/양과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02-838-2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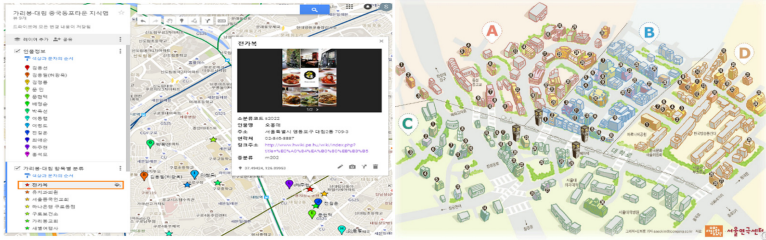
[그림 13] 가리봉동 음식문화지도 팸플릿

안 내 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연구센터는 가리봉-대림동 중국 동포타운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를 동포단체와 협력하여 수년 전부터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사업의 기획 주제로 **“조선족 이야기를 담은 가리봉-대림동 중국동포타운 지식맵구축”** 연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동포사회의 각종 정보를 모아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자료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관광객 및 한국인들의 방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동포 주요단체와 중국동포식당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문화지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와 함께 만들 오프라인 문화지도가 동포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질 좋은 중국 음식을 먹고자 하는 한국인과 중국관광객의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단체와 업체는 아래의(참조)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김우경(010-9746-50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예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연구센터 02-2173-2934

업체/단체명	주요활동/품목	지역	주소 및 연락처(이메일포함)	대표자

작은연구 좋은서울 15-14

가리봉-대림 중곡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3월 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